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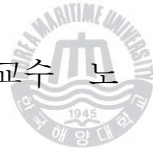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의 소설에 나타난  
여신 신화의 재현에 관한 연구  
- 『파라다이스』 (*Paradise*)를 중심으로 -

The Representation of the Mythology of Goddess in Toni  
Morrison's Novels: Focusing Particularly on *Paradise*

지도교수 노 종 진



2009년 2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박혜영



문학석사 학위논문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의 소설에 나타난  
여신 신화의 재현에 관한 연구  
- 『파라다이스』 (*Paradise*)를 중심으로 -

The Representation of the Mythology of Goddess in Toni  
Morrison's Novels: Focusing Particularly on *Paradise*



2009년 2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박혜영

# 목 차

Abstract .....	ii
I. 서론 .....	1
II. 『파라다이스』에 나타난 여성 .....	6
I. 흑인 공동체 내 여성 배척이 갖는 신화적 상징성 .....	6
II. 여성 인물을 통해 본 고대 여신 종교의 재현 .....	24
III. 흑인 여성의 정체성 확립 .....	35
IV. 결론 .....	51
Bibliography .....	55

# The Representation of the Mythology of Goddess in Toni Morrison's Novels: Focusing Particularly on *Paradise*

Park, Heh Young

*Major i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Korea Maritime University*

## Abstract

Toni Morrison, the first African-American Nobel Prize winner, and one of the most influential writers in American literature, has dealt with the issues of race and sex in American society since her first novel *The Bluest Eye* was published. In her works, Morrison mostly deals with the identity and historical consciousness of African-Americans, and also describes black women's double-damaged reality as a black and woman in the Black commun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female problems appearing in Morrison's works from the mythical point of view. This approach has not been adopted so far. According to the mythologists' theory, there was a time when the Goddess belief was the principal part in all over the world, and the gender of God was considered as female or gamogenesis. Also, the woman's position was higher than man or at least equal. However, the invasion of the northern race, or the group of warlike Indo-European family,

resulted in the disappearance of the Goddess belief and the worshipers of Goddesses. But every myth and religion retains the traces of this Goddess belief.

In this paper, I analyse Morrison's works, focusing particularly on *Paradise* from this mythical point of view. *Paradise* is mainly the story of women wounded by a patriarchal society. The men of Ruby, the village allowing Black people only, reject the women and even use of violence toward them for their distorted ideology. Their rejection of and violence against the women symbolize the historical and mythical event explained above. The attack on and critique of the patriarchal society are reconstructed by the men of Ruby.

Nevertheless, the women in *Paradise* got over their traumas and gained rebirth, as divinities. They accept their wounds, transform themselves, and tolerate the people who hurt them. Not just keeping silent under the rejection and violence of the patriarchal society. We can find the figure of liberal and tolerant Goddess who existed and were worshipped in the ancient time through the women in *Paradise*. Moreover, through these women, we can find how to settle one's identity and individuality as a woman in contemporary society.

## 1. 서론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여 그 명성을 인정받고 있는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은 1970년에 출판된 『가장 푸른 눈』(*The Bluest Eye*) 이후 꾸준한 작품 활동 속에서 미국 백인 주류 사회 내 흑인들의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오고 있다. 모리슨은 흑인 고유의 문화 및 전설을 비롯, 은유와 환유, 색채의 대담한 사용, 역사적 사실주의와 시, 블루스, 기괴함과 아름다움, 폭로와 서정성이라는 다양한 서술양식을 작품 속에 투영하여 백인 사회 내에서 진행되는 인종과 성 문제를 재현하고 공론화한다(신재민 163).

1920년대에 시작된 흑인문화 부흥운동인 할렘 르네상스(Harlem Renaissance) 이후 1960년대까지 흑인문학의 계보는 주로 남성 작가들에 의해 주도되어왔다. 이 시기에 많은 흑인여성작가가 활동하였지만, 여성의 목소리가 인종차별에 대한 남성작가들의 목소리만큼이나 부각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일어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영향으로 자율성과 다양성이 인정받기 시작하며, 1970년대에 들어서 이제까지 미국문학사에서 주변으로 소외되었던 미국 흑인여성문학이 전성기를 맞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토니 모리슨은 자본주의가 만연한 백인사회에서 희생당하는 어린 흑인 소녀 피콜라(Pecola)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가장 푸른 눈』을 시작으로, 흑인공동체의 생성과 소멸의 역사를 그린 『술라』(*Sula*, 1973), 어린 자식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밖에 없었던 흑인노예 도망자 마가렛 가너(Margaret Garner)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빌러비드』(*Beloved*, 1987), 과거 노예생활을 했던 선조들의 기억을 통해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과정을 그린 『솔로몬의 노래』(*Song of Solomon*, 1977), 흑인 고유의 재즈 음악을 소설로 형상화시킨



『재즈』 (*Jazz*, 1991), 그리고 본 논문에서 주요하게 다루게 될, 인종과 성으로 구분되는 집단의 대립을 그린 『파라다이스』 (*Paradise*, 1999)와 가장 최근작인 『사랑』 (*Love*, 2003)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흑인의 역사와 위치를 재조명해왔다.

모리슨의 작품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흑인의 인종문제와 그들의 정체성 회복 및 역사의식에 관한 연구이며 이것은 모리슨을 다른 흑인여성작가들과 구분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자신이 써온 작품의 주제에 대해 그녀는 크리스티나 데이비스(Christina Davis)와의 대담에서 “정복자가 자기 방식대로 역사를 기술한다고 해서 이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이를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 나라 흑인들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역사의 많은 부분이 왜곡 또는 삭제되면서 흑인들의 현존과 맥박이 조직적으로 소멸되었으니 복원하는 작업이 우리의 일이다.”라고 언급하며 잘못된 흑인들의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223).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흑인 문제와 여성문제를 결합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모리슨은 로즈마리 레스터(Rosemarie K. Lester)와의 대담에서 “그들(흑인여성들)은 늘 어머니이자 일꾼, 어머니이자 노동자의 두 가지 역할을 해왔다. 미국에서 흑인여성들의 역사는 지극히 고통스럽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이었다.”(49)라고 언급함으로써 흑인여성들이 감내해야했던 고통에 대해 묘사했다.

또한 모리슨의 초기 소설 『가장 푸른 눈』에서는 흑인 여성들의 삶의 위치를 이러한 말로 표현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위치에 있다. 백인 여성들은 말한다. “이거해.” 백인 아이들은 말했다. “저거 좀 줘.” 백인 남성들이 말했다. “이리 와.” 그리고 흑인 남성들이 말했다. “드러누워.” 라고. 지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흑인 아이들과 흑인 여성 자신들뿐

이었다.

Everybody in the world was in a position to give them orders. White women said, "Do this." White children said, "Give me that." White men said, "Come here." Black men said, "Lay down." The only people they need not take orders from were black children and each other. (138)

“나는 흑인여성들을 위해 글을 쓴다”(Russell 46)라고 언급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노예제도는 폐지되었지만 백인들의 뿌리 깊은 지배의식과 인종차별의 희생이라는 고통을 공유하고 있는 흑인 사회 내에서조차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백인들뿐만 아니라 같은 흑인 남성에게서도 지시의 대상이자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흑인 여성의 이중고를 모리슨은 지적한다. 백인 중심의 지배가치가 주도하는 인종차별, 그리고 흑인남성의 권위가 지배하는 흑인공동체 내에서의 배척으로 인해 흑인여성은 여러 층위에서 주체가 아닌 타자로서의 역할을 강요당해온 것이다. 즉, 흑인남성들만이 자아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왔고 그러한 흑인남성들은 흑인여성들에게 특권을 가진 중심으로 군림해왔다. 흑인남성들은 종족을 대표하는 얼굴이며 이야기의 주체인 반면 흑인여성들은 언제나 종속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흑인 내의 고착된 성차별의 피해자였다(McDowell 79).

물론 이러한 현상이 새로운 것이라든가 특정 공동체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모리슨이 여성에 대해 “때때로 우리 각자는 모두 어떤 의미에서는 희생자이며, 그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Bakerman 40)라고 언급한 것과 같이 미국 내 흑인 여성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많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최하층에 머물고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자 상식이다. 여성은 본디부터 남성보다 연약하고 독립적이지 못하며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사회에서 공적인 일을 하기 보다는 가정에서 조용히 집안일을 하고 남편을 보좌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

시키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는 사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없이 사회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주로 다루고자하는 『파라다이스』 (*Paradise*)를 비롯하여 모리슨의 다른 여러 작품 속에 등장하는 많은 여성 인물들은 정형화된 여성의 이미지를 타파하고 현 사회가치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들은 기독교와 남성중심의 미국사회에 의해 미신, 비문명화, 이단의 상징으로 낙인찍힌 주술, 마법, 의식을 행하며 성의 억압과 남성의 법에 대한 종속을 거부한다. 이러한 여성 인물들의 ‘거부행동’은 발굴되고 있는 유물과 고대의 신화, 전설에서 추론할 수 있는 오랜 옛날 존재했던 모계사회의 흔적과 무관하지 않다. 그들이 섬겼던 ‘신’이 양성, 또는 여성으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고 여성이 누리던 지위와 그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랐던 시대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연구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역사적 기록을 근거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원전 3,000~2,000년 사이에 남성 신을 숭배하는 북방민족<sup>1)</sup>의 침입으로 주를 이루던 여신신앙이 소멸되고 박해받기 시작하는데, 당시의 집요한 여신 신앙에 대한 공격이 현대에까지 전승되어 사회관념 속에 남아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분석이다.

청동기 시대가 끝날 무렵, 좀 더 뚜렷한 모습이 드러난 때로 치자면 철기 시대가 동틀 무렵, 갑자기 침입한 부권적인 전사 부족들이 여신 어머니의 낡은 우주론과 신화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놓고, 재해석하고, 또 많은 부분을 잘라내게 되었다. 이 부족들의 전통은 주로 구약과 신약, 그리고 그리스 신화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져온다. (캠벨 16)

과거 힘을 가진 백인들이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흑인들을 열등하고 무지하거나 선정성을 지닌 인물로 묘사하고 그것을 정

---

1) 근동과 중동 지역에 나타나기 전 북쪽 러시아와 코카서스, 북유럽 지역의 유목민 또는 뱃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인도유럽인, 인도이란인, 인도아리아인을 일컫는다. 호전적인 전사 집단으로 부권을 옹호하며 대표적인 부족은 히타이트인이나 아리아인이다.

설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던 것과 같이, 여성에게 부과된 약하고 순종적인 이미지와 성녀-창녀의 이분법은 사회, 종교적으로 주도권을 잡은 남성들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파라다이스』는 여신 종교에 대한 남성신 종교의 침입과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작된 여성에 대한 남성의 박해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답습하고 있다고 분석될 수 있는 작품이다. 이러한 상징성이 어떻게 작품 속에 스며들어 있는지를 밝혀내는데 있어서, 2장에서는 『파라다이스』에 등장하는 사회공동체와 여성인물들을 신화학적 분석을 통해 재해석하고, 사회 내의 여성에 대한 배척과 멸시의 분위기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어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탐구할 것이며, 3장에서는 이러한 편견과 의식을 극복하고 흑인 여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해보려고 한다.



## 2. 『파라다이스』에 나타난 여성

### 2.1 흑인 공동체 내 여성 배척이 갖는 신화적 상징성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인간은 탄생과 동시에 가정에서부터 사회적 관계와 태도를 관찰하게 되고 자라가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허용되는, 그리고 허용되지 않는 것들을 교육받게 된다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메사추세츠 브랜다이스 대학의 사이러스 고든(Cyrus Gordon) 교수는 이렇게 썼다.

우리는 학습 과정에서 제재만이 아니라 태도도 흡수한다. 그런 태도는 제재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교육 과정에서 태도가 제재만큼이나 중요한 이유다.

We absorb attitudes as well as subject matter in the learning process. Moreover, the attitudes tend to determine what we see, and what we fail to see, in the subject matter. This is why attitude is just as important as subject matter in the educational process. (Stone 24 재인용)

요약하자면 우리의 의식 속에 잠재된 차별, 배척, 편견 의식이 가정에서 학습하게 되는 태도에 의해서 형성되고, 이러한 태도는 오랜 시간 과거로부터 물려져 내려온 사회적 유산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식의 형성에 기여하는 데에는 한 사회를 지배하는 종교적 사상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유교와 불교사상이<sup>2)</sup>,

---

2) 본 논문에서는 서양문화권의 가부장제 확립과 신화, 종교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동양 문화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추측을 내어놓자면,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 남성신을 숭배하는 북방 민족의 침입으로 여신 종교의 말살과 점차적인 가부장제 확립이 가능하였던 것 같이 동양권의 가부장제 역시 비슷한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예

중근동 지역에서는 이슬람 사상이,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는 기독교 사상이 사회의식을 관장한다. 이 주된 종교들의 경전과 가르침을 보면 각각의 교리는 다르지만 한 가지 일치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성의 지위를 남성의 아래쪽에 두는 것이다. 기독교로 대변되는 서구의 믿음 체계는 모든 것을 남성과 여성, 흑과 백, 육체와 영혼, 순수와 불순수같은 이분법적인 체계로 나누며, 이러한 가치 체계는 타자로 지목된 상대를 악마시하고 희생양으로 만든다. (김영희 144)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서는 구약의 창세신화에서부터 여성은 남성이 창조된 이후, 그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그의 가장 쓸모없는 부분인 갈비뼈로 만들어졌으며, 뱀의 꼬임에 넘어가 인류를 타락의 길로 걷게 만들었다고 단죄한다.

여자는 일체 순종하며 조용히 배우도록 하십시오.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자는 조용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담이 먼저 창조된 다음에 이브가 창조되었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전서 2:11~14)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니 조용히 하십시오. 율법에도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8, 14:34~35)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성경의 전체 내용에 걸쳐 여성은 남성의

---

상된다. 동양권의 전설과 신화에도 서양 신화와 마찬가지로 창조자와 최고신으로서의 여신이 등장한다. 과정은 조금 다르지만 이 여신들 역시 남성중심주의의 확립과 더불어 자연히 소멸하였고 여성의 지위나 상속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동양권의 남성중심주의와 가부장제 확립이 북방민족이나 인도 및 중근동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그 사상과 문화를 전수받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리를 해볼 수 있겠다. 국내의 연오랑세오녀 설화나 허황후 설화만 살펴봐도 당시의 동양권 고대국가들이 인도 지역 및 주변국가와 교류했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근희 저 『우리 안의 그들 역사의 이방인들 : 섞임과 넘나들 그 공존의 민족사』(너머북스, 2008)라는 도서를 추천한다.

소유물에 지나지 않으며 공적인 일이나 사회에 참여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경한 어조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비하를 당연시하고 있다.

알라신께서는 남자를 여자보다 우수하게 만드셨고 또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그들의 부를 사용하므로 남자들은 여인들의 보호자니라. 그러므로 덕망 있는 여인은 알라신의 보호와 함께 순종하며 남편의 비밀을 지키노라. (수라 4:35)

이러한 사상을 기조로 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여성의 위치가 종속적이며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진리’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남성의 우월성과 여성의 열등함을 주장하고 있는 각종 경전에서조차, 현대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남성’신의 종교가 확립되기 이전에 전 세계에 걸쳐 존재했던 모계사회와, 성행했던 여신종교의 증거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증거들을 탐구하기 전에 각 나라 신화마다 최고신이 정착하기 이전에는 거의 언제나 세상을 창조하고 신들을 낳은 어머니 여신이 존재했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예로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신인 제우스(Zeus)가 올림푸스 산에서 주권을 잡기 전 섬겨지던 신은 가이아(Gaia)로서 그녀는 세상을 낳은 만물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었다. 이집트에서는 여신 누트(Nut)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전해지며 그녀의 딸로 나타나는 이시스(Isis)가 최고 여신으로 숭배 받았다. 또한 중근동 전역에 이르러 최고신으로 섬김 받던 신은 이난나(Inanna), 아스타르테(Astarte) 또는 이슈타르(Ishtar) 등으로 알려진 사랑과 전쟁, 다산을 모두 아울러 수호하는 여신이였다.

멀린 스톤(Merlin Stone)은 저서 『하느님이 여자였던 시절』(When God Was a Woman)의 도입부에서 비문이나 구전으로 내려오는 여러 문구들을 배치하여 주로 중근동에서 성행했던 여신 숭배의 증거로 삼고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태초에 이시스가 있었다. 이시스는 오래된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이며, 모든 되어 가는 것들이 비롯된 여신이다. 이시스는 위대한 여인이며, 이집트 두 땅의 여주인이며, 피난처의 여주인이며, 하늘의 여주인이며, 생명의 집의 여주인이며, 신의 말씀의 여주인이다. 이시스는 독특하다. 이시스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에서 지혜로운 마법사며 다른 어떤 신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집트 테베, BC14)

In the beginning there was Isis: Oldest of the Old, She was the Goddess from whom all Becoming Arose. She was the Great Lady, Mistress of the two Lands of Egypt, Mistress of Shelter, Mistress of Heaven, Mistress of the House of Life, Mistress of the word of God. She was the Unique. In all Her great and wonderful works She was a wiser magician and more excellent than any other God. (10)



결정을 내리시는 분에게, 만물의 여신이여, 탄원을 받아들이시는 하늘과 땅의 여인에게, 청원을 받아들이고, 기도를 환영하는 분에게, 의로움을 사랑하는 동정심 많은 여신에게. 여신 이슈타르, 혼란스러운 모든 것을 누르시는 이여. 하늘의 여왕, 우주의 여신에게, 무시무시한 혼돈을 걸으며 사랑의 법으로 생명을 가져오신 이에게. 그대는 우리에게 혼돈으로부터 조화를 가져오셨으며, 우리 손을 잡고 혼돈으로부터 이끄셨습니다. (바빌로니아, BC 18~7)

Unto Her who renders decision, Goddess of all things, Unto the Lady of Heaven and Earth who receives supplication; Unto Her who hears petition, who entertains prayer; Unto the compassionate Goddess who loves righteousness; Ishtar the Queen, who suppresses all that is confused. To the Queen of Heaven, the Goddess of the Universe, the One who walked in terrible Chaos and brought life by the Law of Love; And out of Chaos brought



as harmony, and from Chaos Thou has led us by the hand. (10)

이러한 문구들에서는 신의 성이 뒤바뀌어있음은 물론이고, 세상을 창조하거나 인간에게 지혜를 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신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으로 인식되었던 적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뿐만 아니라 기원전 49년에 시칠리아의 디오도로스(Diodoros Sikelos)는 아프리카 북부와 근동 몇 나라의 여행기를 쓰면서 자신이 관찰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글에는 여자들의 지배적인 지위를 알려주는 내용이 많았다. 에티오피아의 여자들은 무기를 들었고 집단혼을 하며 공동으로 자식을 길렀으며, 리비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네이트(Neith) 여신을 높이 섬겼는데, 디오도로스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모든 권위는 여자에게 부여되었으며, 여자들이 모든 공적인 의무를 이행했다. 남자들은 지금 우리 사회의 여자들이 하는 것처럼 집안일을 돌보았으며 부인들이 시키는대로 했다. 남자들은 병역을 맡거나 정부의 일을 맡거나 공직에 나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런 일을 허용하면 여자들에게 맞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자식은 낳자마자 남자에게 넘겨졌으며 남자는 나이에 맞게 우유나 다른 음식을 먹이며 아이를 길렀다.

All authority was vested in the woman, who discharged every kind of public duty. The men looked after domestic affairs just as the women do among ourselves and did as they were told by their wives. They were not allowed to undertake war service or to exercise any functions of government, or to fill any public office, such as might have given them more spirit to set themselves up against the women. The children were handed over immediately after birth to the men, who reared them on milk and other foods suitable to their age. (Stone 35 재인용)

이집트에서는 왕조시대가 시작된 이후 기원전 3천년 경 남성 신들이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여신의 개념이 늘 핵심을 이루었다. 디오도로스는 당시 이집트의 법 가운데 하나를 설명하면서 왕비가 왕보다 더 큰 권력과 명예를 가졌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부인이 남편보다 권위를 누렸으며 심지어 남편이 결혼을 할 때 부인에게 모든 일에서 복종하겠다고 맹세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디오도로스보다 수백 년 먼저 태어난 그리스의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에 대해 여자는 시장에 가고, 사무를 처리하고, 사업을 하는 반면 남편은 집에서 직물을 짠다고 기록했다.

수메르에서는 부인이 아이를 낳은 뒤에, 남자가 부인을 거부하고 다른 부인을 맞으면 그 남자는 가진 것을 모두 몰수당하고 집에서 내쫓기며 그 남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처벌을 한다는 법이 있었으며, 또한 남자가 전쟁에 나가있는 동안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을 경우, 이 여자는 여전히 법적으로 첫 번째 남자의 부인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빌로니아 초기 문명에서는 여성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누구든지 어머니에 대한 거부의 벌은 공동체로부터 추방하는 것이었다. 여자들은 재산을 상속받고 법적인 행동을 하고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었으며 심지어 남편이 상속받은 것 가운데에서도 일정한 몫을 차지했고 함무라비 시대에 여자들은 자유롭게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 아나톨리아에서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전까지 여신 종교가 성행했고 모계상속의 원칙이 지켜져 왔으며, 도리아인에게 멸망당한 것으로 알려진 크레타 섬에서 발견되는 대다수의 여신상과 유물 벽화를 통해 여신숭배가 당시 전반적인 세계 사회의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열거한 많은 여신 신앙과 모계사회의 흔적은 그 시대의 유물과 기록, 그리고 변형된 형태로 남아있는 신화들을 통해 거부할 수 없는 증거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당연시되는 남성중심주의 구조를 보면, 어째서 이러한 모계사회와 여신종교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레 제기되는데, 많은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그것이 기원전 3,000~2,000년경 사이에 시작된 인도유럽어를 사용하는 북방 민족들의 침략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부러지지 않는 철제 무기를 든 이 침략자들은 매우 호전적인 전사 집단이었으며 남성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사제 계급이 높은 지위를 차지했다. 그들의 신은 산 위에서 번쩍거리는 빛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각 문화의 신화 속에서 최고의 자리를 점령한 남성신이 번개나 폭풍의 신으로 묘사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침략자로서의 그들은 자신들의 우월성을 각인시키고 토착민족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신화를 사용하여 피지배층과 그들의 신이 받는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도록 의식의 변화를 촉구했다. 토착 신화에 존재하던 여신들은 침략민족의 남성신에게 살해당하거나 정복당하며, 많은 경우 최고 지위에 있던 여신을 남성형태로 바꾸거나, 남성신의 배우자나 딸의 형태로 바꾸어 지위를 격하시켰는데, 이러한 신화의 변형 속에서 초기 신앙의 여신들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잃어버리고 소극적인 보조자, 혹은 죽음과 같은 부정적인 것만을 관장하는 신으로 변형되었다. 지배의 타당성을 위해 신화를 사용하는 것은 『파라다이스』에서 헤이븐(Haven) 마을의 설립자들이 백인들과 부유한 흑인들에게 거부당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여정을, 적의 지배를 벗어나 신의 인도와 계시를 동반하는 성경 속 출애굽 형태의 신화로 바꾸고, 그들의 신화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수녀원의 여성들을 공격하는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인도유럽인들이 가지고 온 신의 이야기와 토착신앙의 대립과정은 흥미롭게도 초기 헤브라이인의 많은 관념 속에 그 기원으로 남아있다. 산 꼭대기에 번쩍이는 신의 개념, 선과 악을 상징하는 빛과 어둠의 이분법 3), 남성 신이 최고의 지배계급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뱀도 물리쳤다는

---

3) 빛은 선이고 어둠은 악이라는 관념은 밝은 피부와 더 큰 체격을 가졌던 북방의 침입자들이

신화는 모든 인도유럽계 종교와 신화에 널리 퍼져있다.

성경의 창세기에도 등장하는 뱀의 이미지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북방의 인도유럽인들의 이야기에서 뱀, 또는 용으로 묘사되는 이 동물은 언제나 최고신에게 죽임을 당하고 내던져지며 첫 인류의 여자를 꼬여낸 교활한 유혹자이자 악마의 현신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남성신 종교가 들어 오기 이전의 많은 종교와 신화들에서 뱀은 신앙의 대상이었다. 아프리카에서 뱀은 세상의 창조에 기여하였으며 “세상을 지탱”하는 “생명”의 상징으로 여겨졌고(파린더 49) 근동과 중동에서 뱀은 기본적으로 여성으로서 숭배되었으며 지혜나 예언적 자문과 관련이 있었다. 신화학의 권위 있는 학자로 알려진 조지프 캠벨(Joseph Campbell)은 『신의 가면: 서양 신화』에서 「창세기」에서 하와에게 유혹의 말을 거는 뱀은 창세기가 쓰여지기 적어도 7천 년 전에 레반트에서 섬기던 어엿한 신이었으며, “진리의 나무의 주관자”(18)로 여겨졌다고 언급했다. “허물을 벗고 새롭게 젊음을 얻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 뱀은 “세계 전역에서 재탄생의 신비를 관장하는 존재”로서 섬겨졌다는 것이다(19). 크레타 섬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발굴된 뱀을 든 여신상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여신의 신전에서 뱀은 신탁을 내리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현대 과학이 밝혀낸 바로는, 어떤 사람이 독사에게 물려 그 독이 몸안으로 들어오면 독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우산뱀이나 코브라등의 독사들에게 물렸을 때 환각제를 복용한 것과 같은 감정적 정신적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Stone 212-14).

즉 지혜로운 조언자이자 여신의 계시를 내리는 존재로 여겨졌던 신성한 뱀을 죽이거나 악한 존재로 탈바꿈시키는 것은 여신에 대한 남성신의 정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솔로몬의 노래』에서 메이컨(Macon)

---

가졌던 토착지역의 피부색이 더 짙은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태도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여동생 파일릿(Pilate)에 대해 “그녀는 뱀이야. 그리고 뱀같이 너를 매혹시킬 수 있지.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뱀이야”(54)라며 위험한 유혹자로 묘사하고 있지만, 이러한 묘사와 달리 그녀는 주인공 밀크맨(Milkman)의 자아탐색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뱀, 즉 ‘여성성’이나 ‘여신 신앙’이 남성신 종교에 의해 그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어버렸으나 실제로는 긍정적인 형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도유럽인들의 신화가 헤브라이인이 기록한 경전인 성경 속에 그 이미지를 남기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스톤은 헤브라이의 신 야훼의 첫 예언자이자 부족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의 위치<sup>4)</sup>와, 헤브라이인의 수혼 관습, 즉 미망인을 죽은 남편의 형제, 또는 형제가 없으면 시아버지에게 주는 법을 통해 인도유럽인들과 헤브라이인이 고대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든 교수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고대 인도에서는 이미 충분히 확인이 되었고 근동에서는 인도유럽인의 침략 이후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관습은 인도유럽인이 도입을 했거나 적어도 그들이 유행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한 이렇게 설명한다. “이제 우리는 왜 헤브라이인과 그리스인이 서양의 첫 역사가로 등장하게 되었는지 추측할 수 있다. 둘 다 히타이트의 기초 위에서 역사 편찬을 시작했기 때문이다”(Stone 108 재인용).

그들이 가졌던 통치 계급으로서의 막강한 위치와 권위의 패턴으로 인해, 성경학자들로부터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가설이 나오고 있는 헤브라이족의 레위인들은 범접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진 신의

4) 성경에 따르면 「창세기」 11장과 12장에 걸쳐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언급되는 ‘하란’은 인도유럽어족인 후르리인이 거주하던 미탄니 왕국의 정중앙에 있는 지역이었다. 또한 아내 사라를 장사지낼 때, 인도유럽어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민족인 히타이트 사람(성경에서는 ‘헷’으로 표기한다.)의 땅을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도 하나의 단서로 여겨진다. 이 당시 사람들은 주검을 묻을 때, 자신에게 익숙한 땅을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히타이트 사람은 ‘당신은 우리 가운데 사는 위대한 지도자’ 라고 칭하며 흔쾌히 매장지를 내주었다. (Stone 106)

대리인으로서, 율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확립시켰다. 그들이 자신들의 남성신 종교를 고착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폭력적으로 침략한 가나안과 주변 국가의 여신 종교에 매우 적대적으로 행동해야만 했다. 그들은 ‘다른 신들’의 숭배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그들 중에 야훼를 섬기지 않는 자들을 죽였다.

그들은 또한 처녀나 기혼자가 아닌 여자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모든 여자들이 아버지나 남편의 개인적 소유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며 여자들의 성적인 도덕의 개념을 만들어내고 제도화했다. 이것은 그들의 정치적 동기를 드러내주는 부분이라고 하겠는데 남성상속의 개념을 확립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여신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자유로운 성적 관습, 모계상속은 커다란 위협이었기 때문이다. 레위인 지도자들이 보기에 여자들이 자신의 소유물을 가지고 법적 정체성을 부여 받고 여러 남자와 자유롭게 성관계를 가지도록 허용하는 고대 여신 종교의 관습이 자기들의 종교와 나란히 존재할 경우, 헤브라이 여자들에게 남편의 소유물이라는 지위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일이 어려워질 것이 틀림없었기에 그들은 헤브라이 여자들에게 여자는 한 남자하고만 동침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는 관념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쳤다. 그들은 여자들의 혼전 순결과 결혼 후 정절이 모든 헤브라이 여자들에게 신이 정해진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규정하며 이것을 어기는 것은 범죄이고 재앙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가르쳤으나 남편들은 여러 여자들을 거느려도 문제가 없었다.

그들은 여신 종교에서 생각하는 여성의 성에 대한 태도와 대립하기 위해 여신 신전에서 찾아오는 남자들과 ‘신성한 결합’을 맺던 여사제들과 성적 자율성을 가진 여자들을 모두 창녀와 음녀라고 낙인찍고 그들 자신의 가부장적인 태도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했으며, 이러한 ‘도덕’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자들에게 부도덕하다라는 비난을 퍼부었다. 일례로 『파라다이스』에서 수녀원 침략을 자행하기 전, 디컨(Deacon)은 정숙한

자신의 아내들과는 달리 자유로운 수녀원의 여자들이 “참다운 여성상을 먹칠하고 더럽혔다”(279)라고 언급하는데, 이 “참다운 여성상”이란 남성들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파라다이스』, 『술라』 등을 비롯한 모리슨의 작품뿐만 아니라 사회상을 그리고 있는 다른 많은 작품들 속에서도 자유로운 성 개념을 가진 여성을 사회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의식이 현대에까지 얼마나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가 된다.

레위인들이 제정한 법에는 결혼한 여자가 강간을 당하거나, 남편의 주장에 의해 처녀가 아니었다고 판단되면 사람들은 그녀를 돌로 쳐 죽였고, 기혼녀일지라도 남성의 일방적인 이혼요구에 희생되어야 하는 등, 가부장제를 확립하기 위한 극단적이고 노골적인 위협을 가해 동등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여성의 권리와 인격을 짓밟았다.

그 이후의 성경 기록에서는 여신 종교를 따르며 그들의 남성신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잔인한 학살과 무자비한 살육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진다. 헤브라이인 지도자들은 여신의 성전과 신상들을 파괴하고 여사제들과 여신 종교의 지지자들을 학살했다. 이것은 무고한 여자들에게 가해지던 중세 시대의 종교재판에서 행한 마녀사냥의 원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여신 종교의 파괴는 인도유럽인 침략자들의 시대를 시작으로 그 후에는 헤브라이인, 헤브라이인의 사상을 이어받은 기독교인, 나아가 이슬람교도의 공격에 의해 집요하게 진행된 것임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성의 구분은 생물학적이기 보다는 심리적이고 문화적 요인이며 후천적으로 습득된 산물이다”(장혜순 38 재인용)라는 밀레(Millet)의 주장처럼 여성과 남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차이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종교적, 사회적 틀에 의해 형성되는 것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부장적 전통의 이상향은 단절되고 고립된 위치에서 전체 구성원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 소수 남성

지배 계층이 엄격하게, 그리고 영구히 통제하며 질서와 법을 위해서 타자를 억압하는 사회라고 바머(Bammer 20)는 정의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지배원리에 따르지 않는 자와 이방인, 그리고 여성은 타자가 되고 마는데 바로 모리슨의 『파라다이스』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이 바로 그 타자화의 희생이 되고 있는 것이다.

루비(Ruby) 마을 남자 주민들이 수녀원을 침략하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되는 『파라다이스』에는 두 종류의 낙원이 등장한다. 몰락한 헤이븐의 뒤를 이어 백인들과 밝은 피부를 가진 부유한 흑인들로부터 차별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자 세운 가부장적 공동체 마을 루비, 그리고 가부장제의 상흔을 가지고 여러 곳에서 흘러들어온 여자들이 머무는, 루비 마을로부터 9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녀원이 그곳이다.

헤이븐의 창건자인 제커라이어 모건(Zechariah Morgan)의 뜻을 기려 흑인 기독교도만이 사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세워진 마을 루비는 표면상으로는 “자유로웠고 치안도 훌륭”한 곳이었다. 늦은 밤 “잠 못 이루는 여인이 언제든지 침대에서 일어나” 아무런 보호도구를 소지하지 않고도 돌아다닐 수 있을만큼 안전한 곳이었다. “90마일 내에 어떠한 것도 그녀를 덮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8). 그러나 루비 마을 남자들은 단지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며, 도입부의 폭력적인 수녀원 침입 사건을 볼 때, 이러한 믿음은 아이러니컬하다(Davidson 356).

여자를 보호하며, 타자에게 차별 당하지 않는 평화로운 마을을 이루고 있다는 믿음 속에 안주하지만, 그 속에서 루비 마을 남자들은 기원전 인도유럽인의 침략 시기로부터 꾸준히 지속되어 온 백인들의 이데올로기를 모방하여 가부장제와 인종역차별이라는 폐해를 만들어낸다. 그들은 제 8암층, 즉 탄광처럼 깊고 검은 자신들의 피부의 순수성을 고집하며 다른 이들을 배척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문학박사 김영희는 논문 「상흔의 탐색과 회복」에서 모건 쌍둥이 형제의 여동생이자 그들의 조카인 케이디(K.D)의 어머니이자 마을의 이름인



루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루비는 귀중한 보석이면서도 그 붉은 색상은 위험한 성욕을 의미한다. 쌍둥이 모건 형제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두 가지 상반된 여성상은 순결한 여성과 창녀의 모습으로 이분화되어 있다. 디컨이 담 너머 지켜본 수영장에서 여름 햇살 속의 보석처럼 반짝거렸던,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던 열아홉 명의 순결한 처녀의 모습, 그 각인된 영상에서 디컨은 여성에 대한 환상을 가진다. 반면 스텐더드가 본 흑인 창녀의 모습은 때려주고 싶은 멸시하는 존재이다. 좋은 여자와 나쁜 여자를 나누는 이러한 구분은 수녀원의 여자들에게 충구를 겨눌 수 있게 만든다. 남성의 여성 보호본능은 여성을 억압하려는 본능인 동시에 여성을 소유하려는 욕망이기 때문이다. (125-6)

위의 분석에 따르면 루비 마을은 마을 남자들의 이상과 욕구를 유지하기 위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 예로 헤이븐을 설립할 때, 공동체의 부역 기능을 했던 마을의 중심부에 자리잡은 화덕은, 마을을 세운 선조들의 위업을 기리는 의미보다 과거 노예제시기에 마을 여인들 중 누구도 백인의 부역에서 노예로 일한 적이 없기에 강간으로 인한 제 8암층 혈통의 오염 가능성을 불식시키는 그들의 자부심을 드러내주는 시각적 상징으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권혁미 45).

그들은 자기네 여인네들 중에서 누구 하나 백인의 부역에서 일하거나 백인의 아이를 키워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몹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비록 발일이 더 힘들고 지위도 더 낮았지만, 백인의 부역에서 일하는 여자들에게 강간이란 확실하진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가능성이라 믿었다. 어느 쪽이든 남자들로서는 생각만으로도 견디기 힘든 수모가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잔혹한 노동의 상대적인 안전과 그 위험을 맞바꾸기로 했다. 함께 하는 '부역'을 짓자는 의견에 그토록 흔쾌히 응한 것은 바로 그런 생각 때문이었다.

They were proud that none of their women has ever worked in a

whiteman's kitchen or nursed a white child. Although field labor was harder and carried no status, they believed the rape of women who worked in white kitchens was if not a certainty a distinct possibility—neither of which they could bear to contemplate. So they exchanged that danger for the relative safety of brutal work. It was thinking that made a community "kitchen" so agreeable. (99)

즉, 마을 남자들이 여성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들이 정한 이상적이고 고귀한 틀 속에 여성을 끼워 맞추고 속박하는 것은, 백인사회와 부유한 흑인사회에서는 가지지 못했던 소유와 억압으로 나타나는 가부장제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들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타협이나 이해가 아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도전받은 권위에 대한 그들의 수치심을 감추고 원래의 위치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대체로 “모든 파라다이스들이 남성의 영토로 묘사되어 있고 여성은 위협적인 침입자이자 방어하기 어려운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D. Smith B2)라고 모리슨이 지적한 바대로, 순종적이고 복종적인 여성상을 기대하는 루비 마을의 남성들에게 수녀원의 여자들은 커다란 위협인자였다. 루비의 남자들은 여자들이 수녀원으로 온 뒤 계속해서 벌어지던 ‘해괴한 일’들이 그들이 수녀원에 오기 전부터 있어온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모두 여자들에게 돌리며 그녀들의 악마 같은 영향력으로부터 마을의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명분을 내세운다.

하느님을 등에 업고, 사내들은 총을 겨눈다. 루비를 위하여.

God at their side, the men take aim. For Ruby (18)

그러나 그들에게 수녀원의 여자들이 위협으로 다가온 이유는 단지 밝

은 피부, 다른 종교, 술 취함, 자유로운 성의식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산파인 론(Lone)이 꿰뚫어보는 그들의 마음속에 교묘히 감추어져있다. 사전트 퍼슨(Sargeant Person)은 마을이 변해가는 것에 대해 큰 소리로 한탄하는 시늉을 하지만, 속으로는 수녀원의 여자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있을 것인가를 셈하고 있다. 위즈덤 풀(Wisdom Pull)은 “형제자매들에게 더 이상 자신의 말이 먹히지 않는 이유를 찾고 있었다”(277). 자신의 아들이 빌리 델리아(Billie Delia)를 사이에 두고 반목을 일삼다가 심지어 총격전까지 벌인 데 대한 수치심과 그 책임을 수녀원의 여자들에게 전가시키고자 한다. 아놀드(Arnold Fleetwood)와 제프 플릿우드(Jeff Fleetwood) 부자는 “오랫동안 스위트(Sweetie)가 낳은 아이들의 불행을 타할 누군가를 찾아 헤매어왔다”(277). 그들은 근친혼으로 인해 태어난 기형아들의 불행과 그들을 돌보아야 하는 괴로움을 타할 대상을 산파인 론에게서 수녀원의 여자들에게로 옮긴다. 메뉴스(Menus)에게 수녀원은 자신이 쏟아낸 배설물과 토사물, 온갖 욕설과 흐느낌을 연상시키는 장소이다. 밝은 피부의 외부인을 배척하는 루비 마을 남자들의 반대로 자신이 데려온 빨간 머리 여자와의 결혼을 포기해버린 메뉴스는 자신의 상처와 용기 없음에 대한 수치심을 베트남전에서 입은 상처 때문인 척 가장하며 지냈지만, 자신을 돌보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수녀원 여자들에게 고마움은 커녕, 이들이 자신의 비밀을 누설해버릴까 두려워한다. 그러하기에 이 여자들을 없애버리면 “허약함에 오염되지 않고 아버지의 인내심에 보답하는 한 남자가 되어 역시 빨간 머리를 차버리기를 잘했다는 확신을 얻게 될지 모르겠다”(278)고 희망한다. 케이디는 수녀원 여자인 지지(Gigi)의 옷차림과 행실을 사납게 비판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지에게 거부당함으로 상처를 입은 자존심과 그를 문전박대한 수녀원 여자들을 향한 복수심이 동기가 되고 있다.

디컨은 한때 콘솔레이타(Consolata)와 외도했던 일에 대한 깊은 수치

심과 그로 인해 자신의 아내인 소앤(Soane)이 콘솔레이타와 교류하게 되면서 자신을 덜 사랑하게 된 것 같다는 패배감을 느끼며 그 흔적을 소멸시키고자 한다. 디컨의 쌍둥이 형제인 스튜어드(Steward)는 소앤이 콘솔레이타의 약을 빌어 자신의 의지로 유산시켰던 자신의 조카손주를 콘솔레이타가 낙태시키도록 사주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혹시나 디컨의 의도로 혼혈아가 태어나 그들의 조상과 마을의 설립이념을 더럽히며 재산을 빼앗기게 될 수도 있었다는 데 대한 엄청난 분노에 휩싸여, 자칫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세간의 웃음거리로 만들 뻔 했던 여자를 없애버리기 위해 무기를 든다.

1965년에 미국 흑인 가정에 대한 연구 보고서로 만들어진 “흑인가정: 국가 정책을 위한 과제”(The Negro Family: The Case for National Action), 일명 “모이니헌 보고서”(Moynihan Report)에서 대니얼 패트릭 모이니헌(Daniel Patrick Moynihan)은 흑인가정을 조사한 후 흑인의 열악한 사람은 가족의 와해에 그 근본 원인이 있으며 가족해체의 책임은 흑인여성에게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흑인여성이 가정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주도하는 “흑인 모계 중심제”가 “흑인 남성을 짓누르는 억압”(75)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흑인 여성의 주도적인 성향을 견디지 못한 흑인남성들이 가정을 버리고 달아나므로 그것이 가족해체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흑인의 열악한 삶의 악순환을 계속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의 상대적 약자인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남성들의 부조리한 심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수녀원 침략을 계획하는 루비 마을 남자들에게서 그러한 부조리가 재현되고 있다.

엄격한 가부장제와 남성성에 의해 건설된 루비 마을의 이념에 길들여진 여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수녀원으로 도망쳐 와 아이를 낳은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던 아넷(Arnette)은 아이의 유산에 대한 책임과 죄책감을 수녀원 여자들에게 돌리고, 기형인 아이들을 돌보느라 심신이 지친

스위티(Sweetie)는 자신의 괴로움을 부인하기 위해 수녀원에서 받은 위로를 악마적인 마술과 유혹으로 둔갑시킨다. 마을 남자와 마찬가지로 흠 없고 자랑스러워야 할 제 8암층의 여자들에게 자신들의 추한 비밀과 처부의 저장소가 된 수녀원은 잠재적인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결국 그들은 모두 자신의 약점과 부끄러움의 원인을 수녀원의 여자들에게 돌림으로써 그 죄책감과 수치심을 씻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오랜 세월이 지나 앞부분의 글자가 희미해져서 원래의 의미를 알아볼 수 없게 된 화덕의 글귀를 “그분의 이마의 주름을 두려워하라(Beware)”로 할 것인지, “그분의 이마에 새겨진 주름이 되어라(Be)”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열띤 토론에서, 외부와의 연결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의견에 따르려하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모건 형제가 불경하다며 “총으로 머리를 날려버리겠다”는 협박을 가했던 것처럼 그들은 또다시 폭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신화와 존엄성을 유지하려한다(86-87). “조작되지 않은 역사란 없다”(160)고 주장한 닥터로우(Doctorow)의 말처럼 루비의 주민들 역시 그들이 만들어온, 그리고 만들어가야 할 공동체의 역사를 “조작”하여 그들의 부끄러움과 비밀을 교묘히 감추고 마을에서 일어난 우연한 사고와 부정적인 사건들을 모두 수녀원의 여자들에게 전가시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한다.

루비의 남자들이 느낀 수녀원 여자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들에 대한 공격은 이단과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쓰워 여신 종교를 말살하던 남성신 종교의 침략을 똑같이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 그에 대한 상징성은 수녀원에 내부에 대한 설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원래 어느 공금횡령자의 아방궁이었다가 나중에 개조된 이 수녀원의 내부를 묘사하는 장면에는 화려한 빛깔의 대리석과 님프 조각상, 욕조를 떠받치는 인어상, 점성술 차트와 여자의 토르소 등으로 가득 차 있다. 님프상 따위를 잘라내어 버리고 수녀원으로 개조해버린 1차적 사건은 과거 남성 유일신의 정착을 위해 정복자들이 행하던 여신 신전에 대한 파괴를

상징한다. 그리고 마을 남자들의 침입은 남아있는 여신의 숭배자들과 여사제들을 말살하기 위한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2차적 작업이라 여겨진다.

타자에 대한 배척과 역차별주의로 대표되는 백인의 가치관을 표방한 흑인 사회의 모습은, 현대 영어권 나라를 이루고 있는 초기 인도유럽인들이 들여온 남성신 종교 사상이 확립한 가부장제도 속에 길들여져 있음을 상징한다. 또한 오늘날에도 남성의 보호와 범을 거부하고 (남성)신의 종교를 따르지 않으며 그로 인해 굳건하고 흠 없어야 할 남성의 권위와 입지를 위협하는 수녀원의 여자들과 같은 여성들을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뿌리 깊은 남성주체세력의 관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2 여성 인물을 통해 본 고대 여신 종교의 재현

아프리카의 정신사에는 아프리카어로 여성의 특성과 관련하여 “창조적인 잠재성 혹은 자연”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Holloway and Demetrakopoulos 153). 여성들이 이러한 힘을 지니게 된 것은 여성이 생명을 잉태하는 자양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아프리카의 우주관에 입각한 것인데 고대 여신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행한 창조사업, 산, 나무, 바위 등의 자연물 앞에서의 숭배, 땅과 농업을 주관했었다는 설화들이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특히 모리슨은 나이든 흑인여성을 흑인 공동체의 정신적인 지주로 묘사하고 있다. 이들이 “고대 여신, 선조정신, 대지의 현대적 구현물 같은 신성하고 성스러운 차원을 재현한다”(Holloway and Demetrakopoulos 161)고 말하듯, 모리슨은 『파라다이스』에서 의도적으로 수녀원의 여성 인물 속에, 사라져간 고대의 어머니 여신, 대지의 여신, 주술사, 치유자의 이미지를 투사하고 있다. 그러나 작품의 후반부까지 수녀원의 여성 인물들은 남성중심 기독교가 허용하는 덕(virtue)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회의 약자 및 타자로 묘사된다. 그들은 부주의한 어머니, 문란한 성생활과 자해를 일삼는 여자, 미혼모, 술주정뱅이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싸움을 벌이고 소란을 일으킨다.

소설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여자 메이비스(Mavis)는 남편에 의한 육체적, 정신적 학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피해자인데다, 부주의로 인해 자식을 유기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남편의 폭력과 네 번의 출산으로 열다섯 번이나 병원에 입원했고 대낮에만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자식들을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되고, 살아있는 자식들과 남편이 공모하여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공포에 시달린다(36). “가부

장적인 사회화는 정말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성을 병들게 한다”(12)는 길버트(Gilbert)와 수잔(Susan)의 지적처럼 메이비스는 지속적인 남편의 성적 학대와 폭력, 자식들의 고의적인 감시와 조롱을 견디다 못해 가족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무기력하고 정신적으로 병든 여성이다. 자식들을 죽이고 남편의 차와 어머니의 귀중품을 훔쳐 달아난 절도범으로 수배령이 내려진 메이비스는 죽은 쌍둥이 멀(Merle)과 펄(Pearl),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몽마(夢魔)의 환영에 시달린다. 그녀는 남겨두고 온 자신의 아이들을 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 몸을 숨긴 채 몰래 바라보고 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수녀원으로 오게 되는 두 번째 인물인 지지 역시 자유분방한 성적 유희의 표상으로 세상의 평판이 좋지 않다. “남들의 호색적인 눈길이 그녀의 등 뒤에 쏟아지는 것”(67)을 즐기는 그녀는 구속된 남자친구 마이키(Mikey)가 말한 흑인 남녀가 “영원히 성행위를 하는”(63) 형상의 바위가 있다는 위쉬(Wish)를 찾아 떠났다가 그 바위는 찾지 못하고 대신 포옹하듯 자라는 나무 두 그루가 있다는 루비까지 오게 된 것이다. 한때 그녀가 마이키와 함께 참여했던 시위에서 경찰과 충돌했을 때 잘 차려입은 흑인 소년이 총에 맞아 흰 셔츠가 피로 물들었는데, 피가 구두까지 버릴까봐 흐르는 피를 손에 받아내는 것을 목격하고 이 장면이 그녀의 뇌리에 충격으로 각인된다. 이 사건 이후 그녀는 피 흘리던 소년의 인상을 지울 수 있는 강렬하고 자극적인 무언가에 집착하게 된 것이다. 수녀원으로 온 지지는 아넷의 남자친구이던 케이디와 2년 동안 관계를 가지는 동안 마음대로 그를 약 올리고, 모욕하고는 결국 그를 차버린다.

세 번째로 수녀원에 오게 되는 여자는 세네카(Seneca)이다. 그녀 역시 어린 미혼모가 버린 사생아이자 강간의 피해로 자해를 일삼는 사회의 주변적 존재이다. 다섯 살 때 그녀가 언니라고 믿고 있던 어머니인 진(Jean)에게 버림받고 5일간이나 그 건물의 집마다 두들기며 자기 언니를 찾고 다닌다. 진이 떠난 4일째 되는 날, 키 큰 여인이 울며 지나가자 그



모습은 영원히 세네카의 마음에 상실한 진의 모습으로 각인된다. 이 여인의 모습이 세네카의 뇌리에는 “가슴을 저미는 꿈”(128)으로 남아, 울며 걸어가는 여자의 모습은 언제나 잃어버린 그녀의 언니 혹은 엄마와 연관되어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그녀는 버림받은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겨 모든 것을 알아서 잘 하면 진이 걸어 들어올 것이라 생각하여 빈 집에서 혼자 이도 깨끗이 닦고 화장실의 물도 잘 내리고 냉장고에서 주스를 꺼내려다 깨뜨린 병조각도 모두 치운다. 그러나 대답 없는 기도와 피 흘리는 잇몸과 배고픔에 지쳐 착한 아이가 되는 것을 집어치운 소녀는 빵 상자에서 진이 립스틱으로 써놓은 편지를 발견한다. 다섯 살이라 글자를 읽을 수 없었던 소녀는 맨 위에 써 놓은 자기 이름과 마지막에 쓰여 있는 진이라는 이름만을 알아보고 그 편지를 고이 접어서 신발에 간직한다. 편지를 읽을 수 있을 때쯤에는 글씨는 다 번져서 불꽃놀이처럼 빨간 종이 한 장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와 함께 두 집을 전전하며 입양되는 것을 견딜 수 있게 한 것은 그 편지였다. 입양된 가정의 오빠에게 성적 학대를 당할 때 바지를 여뻤던 핀에 긁혀 피가 난 것을 시작으로 그녀는 괴로울 때에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으로 자신을 진정시킨다. 자해함으로 보상하는 습관이 든 세네카도 이곳저곳을 떠돌다 트럭을 얻어 타고 마침내 닿게 된 곳이 수녀원이다.

마지막으로 오게 되는 여자는 16살의 소녀, 팰러스 트루러브(Pallas Truelove)로 그녀 역시 성적 희생자이다. 엄마는 집을 나가고 변호사인 부자 아버지와 살다가 그녀가 다니는 고등학교 수위이자 조각가 지망생인 카를로스(Carlos)와 사랑을 하게 되고 화가인 그녀의 엄마 디디(Didi)가 사는 뉴멕시코로 사랑의 도피행각을 한다. 그러나 엄마 디디가 자신의 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곳을 뛰쳐나온다. 그녀는 미친 듯이 차를 몰고 가다가 남자애들에게 쫓겨 강제로 끌려 내린 뒤 강간을 당하게 되는데 쫓는 자들을 피하느라 호수 근처의 검은 물에 숨었던 것이 언제나 악몽으로 남아있다. 숨어 있던 그녀를 발견한 루비의 주

민 빌리 델리아(Billie Delia)가 수녀원으로 데려다주지만 수녀원에 온 뒤에도 그녀는 처음에는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녀는 밤마다 검은 물의 정신적 충격에 호느끼고, 자기가 임신했음을 알고는 한때 수녀원으로 와 고의로 자신의 아이를 유산시키고 도망쳐버린 아녜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실을 부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수녀원으로 온 여자들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콘솔레이타는 브라질의 어느 거리에서 주워온 아이였으며, 루비 마을 제 8 암층의 검은 피부의 주민들에게는 배척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초록색 눈, 홍차 색깔의 머리카락, 햇볕에 그을린 연기 색깔의 피부를 가진 여자이다. 9살에 대책없는 난교의 희생자가 된 그녀는 메리 마그나(Mary Magna)<sup>5)</sup> 원장수녀의 손에 이끌려 미국으로 함께 오게 된다. 39년을 독신으로 원장 수녀에게 헌신하던 그녀는 어느 날 루비 마을의 유지인 소앤의 남편 디컨을 만나 열렬한 사랑에 빠진다. “살아계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았던 30년 동안의 삶은 그녀가 살아 있는 남자를 만났을 때 계란처럼 바스러지고”(225) 이제껏 길들여져 온 기독교의 금욕주의 가르침을 깨뜨린 채, 디컨과 사랑을 나누던 그녀는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핥아 남자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남자를 식사감으로 먹어치우려는 여자로 오인받고 사랑이 끝나게 된다. 이 사랑이 끝나면서 그녀는 너무나 밝은 태양에 눈이 상해 빛에서는 잘 볼 수 없고 대신에 “어둠 속에서 더 잘 볼 수 있게 된다”(241). 그녀는 마리아 원장 수녀가 죽은 후 고아가 되었다는 상실감에 사로잡혀 술에 의존하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벌레 같은 자신의 삶에 진저리치며”(221) 언제나 술에 취해 지낸다.

5) 캠벨(Campbell)의 저서 『신의 가면: 서양신화』에 따르면 기원전 204년 로마에는 위대한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마그나 마테르(Magna Mater) 숭배가 공식적으로 성행했다.(13) 성모 마리아를 뜻하는 Mary와 위대한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진 Magna의 이름을 가진 메리 마그나 원장 수녀는 콘솔레이타에게 자신을 돌봐주고 아픔을 끌어안는 ‘성모,’ ‘위대한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

지금까지 묘사한 바대로 수녀원의 여자들은 처음에는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한 어머니,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 사생아, 강간에 의한 미혼모, 술에 취해 있는 여성 등 남성 사회에서 부정하다고 낙인찍은 여성상을 보인다.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기독교의 초석이 된 헤브라이인들의 구약 율법에 따르면 이러한 여자들은 돌로 쳐 죽이거나 추방해야만 하는 불순한 존재였다. 이러한 ‘불순한’ 여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신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여자들이 순결함을 지키며 경건하게 지내야 할 ‘수녀원’이라는 점은 매우 아이러니컬하다. 그러나 “누가 살 자격이 있고, 누구는 없는지”(308) 판단하려는 남자들이 없는 이곳에서 여자들은 자신의 상처들을 털어놓고 안도감을 누릴 수 있으며, 떠났다가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었다. 기독교적 남성사회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모습으로 그려졌던 여자들은 수녀원에 살면서, 작품 후반부의 신비한 의식 이후로 마지막까지 주술사, 치유자, 강한 여전사의 모습으로 변화한다.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이는 인물은 메이비스이다. 그녀는 학대를 하는 남편과 살 때는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겁에 질린 무능한 여자로 그려졌지만, 수녀원에 와서는 수녀원 여자들의 만언니 역할을 하며 지지와 맞붙어 소란스럽게 싸울 정도로 강해진다.

사실 메이비스는 싸움을 즐겼다. 지지를 두들겨 패고, 또 두들겨 패고 심지어 깨무는 것까지도 요리만큼이나 기분 좋았다. 예전의 메이비스가 죽고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였다.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열한 살짜리 딸조차 무서워서 찢찢매던 메이비스가 아니었다. 간단한 식사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해 파는 음식 따위에 의존했던 메이비스가 이제 매일매일 쇼핑도 안 하면서 크레이프 같은 요리를 척척 해내고 있었다.

In fact she had enjoyed it. Pounding, pounding, even biting Gigi was exhilarating, just as cooking was. It was more proof that the old Mavis was dead. The one who couldn't defend herself from an eleven-year-old girl, let alone her husband. The one who couldn't figure out or manage a simple meal, who relied on delis

and drive-throughs, now created crepe-like delicacies without shopping every day. (171)

지지와 과격한 몸싸움을 하고 자발적으로 요리를 하는 것은, 남편의 성적, 육체적 학대를 당하며 그의 입맛에 맞는 요리를 하기 위해 두려움에 떨며 식재료를 고르던 과거의 메이비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다. 그녀에게 있어 남성들의 잣대가 침범하지 않는 여자들만으로 이루어진 소란스러운 수녀원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장소인 것이다.

재미와 모험, 자극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듯 보이는 지지는 그녀는 육조에 드러누워 정신적 외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눈물을 흘릴 정도로 솔직해진다. 끊임없이 자해를 하는 세네카는 지지와 메이비스 사이의 싸움에 중재자 역할을 하며 겁에 질린 펠러스를 돌보고 수녀원에서 안도감을 만끽한다. 연인의 배신과 강간의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펠러스는 “마법과도 같은”(173) 코니의 질문에 입을 열고, 아버지에게로 가기 위해 수녀원을 떠났다가도 다시 그곳으로 돌아온다. 수녀원의 여자들은 함께 음식을 만들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며, 콘솔레이타가 그녀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수녀원으로 찾아와 비밀스럽게 숨겨진 상처를 쏟아내고 가는 루비 마을 사람들을 돌보아준다.

산과인 론에 의해 자신의 ‘걸어들어가는’ 능력을 깨닫고 소앤의 아들들의 생명을 살린 일을 계기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간섭’을 시작하게 된 콘솔레이타는 작품 후반부에서, 매일 밤 죽기만을 바라며 저주스럽게 여기던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수녀원의 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치료자로 탈바꿈한다.

루비 마을 공동체가 믿는 남성중심의 기독교에 의해서는 치유되지 않던 수녀원 여자들의 상흔은 콘솔레이타가 주도하는 “소란스런 꿈꾸기”(Loud Dreaming) 의식 속에서 치유를 경험한다. 페인트와 분필을 사

용한 그림 그리기, 그리고 빗속에서 춤추기를 포함한 집단적인 치유의식 등은, 수녀원의 여자들이 루비 마을 사람들처럼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고통에서 도망치는 대신, 그것을 끄집어내어 공유하게 하며 자신의 상흔에서 걸어 나오게 하는 마술적 도구로서 작용한다.<sup>6)</sup>

세네카는 국영 연립주택에서 맞이했던 어두운 아침의 기억을 포용하고 마침내 떨쳐버렸다. 그레이스는 절대 더럽혀져서는 안 되었던 흰 셔츠의 얼룩이 마침내 지워져 하얗게 세탁되는 모습을 목격했다. 메이비스는 샤론의 장미꽃잎이 피부를 간질이는 촉감에 전율했다. 아들을 낳은 펠러스는 아이를 꼭 안고서,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겁먹은 여인과 시커먼 물의 기억을 빗줄기가 씻어내리는 동안 기다렸다.

Seneca embraced and finally let go of a dark morning in sate housing. Grace witnessed the successful cleansing of a white shirt that never should have been stained. Mavis moved in the shudder of rose of Sharon petals tickling her skin. Pallas, delivered of a delicate son, held him close while the rain rinsed away a scary woman on an escalator and all fear of black water. (283)

재생을 상징하는 빗줄기에, 수녀원의 여자들은 자신들을 움아매던 암울한 기억들을 씻어낸다. 흰 셔츠의 피, 시커먼 물의 기억, 홀로 남겨졌던 연립주택의 어두운 아침, 그리고 메이비스가 집을 뛰쳐나와 절망적으로 바라보던 샤론의 장미<sup>7)</sup>는 부드럽게 그녀를 달랜다.

여자들의 상흔을 이끌어내고 씻어주는 콘솔레이타의 모습은 헤론(Herron)과 베이컨(Bacon)이 「주술과 주술사」 “Conjuring and

6) 콘솔레이타가 수녀원의 여자들에게 행하는 의식은 아프리카의 토속 종교가 브라질에 노예로 끌려온 흑인들에 의해서 변형된 이산종교인 칸동블레의 의식이다. 성모라 불리우며 가톨릭의 교황과도 같은 위치의 흑인 여성 성직자가 주도하고 있는 이 종교 의식은 “원죄에 대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기독교적 의식과는 다르게 “춤과 노래와 울음과 발 구르기와 소리치기와 배꼽이 빠질 듯 크게 웃기가 어우러지는 축제와 같은 의식”이다. (신진범 214)

7) 샤론의 장미 (rose of Sharon)은 무궁화를 뜻하는데, 그리스어로는 ‘치료한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Conjure-Doctors”에서 설명한 주술사의 모습과도 같다.

노예시대에, 주술사의 존재는 노예들을 체벌로부터 구출하며, 감시자의 눈을 피하거나 도주했을 경우, 주인의 분노로부터 고통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로 나타났다는 빈번한 기록이 있다.

In slavery times, there are frequent records of the conjure doctor's being appealed to save the slave from punishment, to enable him to escape the "patrollers" or, in the case of a runaway, to enable him to return home without suffering from his master's anger.  
(361)

마찬가지로 남성중심 사회의 법속에 상징적인 노예일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이 남성과 남성사회로부터 받은 신체적, 정신적 외상에서 벗어나도록 콘솔레이타가 바로 이런 주술사 및 치료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이름이 이탈리아에 유명한 투린(Turin) 신전에 유래되어 ‘위로자이신 성모(Nostra Senora Della Consolata)’를 뜻하며, 초기 기독교로 올라가면 존경스럽고 기도를 해주는 어머니와 아이상으로 발전되었다고 말해지는 콘솔레이타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Timothy 129).

콘솔레이타와 수녀원 여자들이 행하는 마법적 의식은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분명히 악마적이고 이단적인 행위이다. 남성의 법에 편입되어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머무는 것을 거부하고 남성중심 가치관에서 벗어나고자 애썼던 여성들을, 남성들은 하나같이 이단적인 마녀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 예로 남성의 규율에 어긋난 『주홍글씨』(*The Scarlet Letter*)의 헤스터(Hester)와 『테스』(*Tess of the D'Urbervilles*)의 테스 같은 여성들은 마치 어떤 사악하고 신비로운 힘을 가진 마녀의 이미지로 그려지며, 불합리한 남자의 예고이즘과 도덕적 편견, 사회적 인습을 비판하는 의도로 남성작가들에 의해 쓰여졌다 하더

라도 결국 남성사회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는 결말을 배치하여 여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와 비슷하게 『파라다이스』 속 남자들 역시 자신들의 법을 거부한 위협적인 여자들이 사는 수녀원을 침략한다. 그러나 『파라다이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성들의 말로는 다른 작품들의 결말과 사뭇 다르다.

수녀원의 여자들은 남자들이 겨누는 총구 앞에서 거세게 반항하고 그들과 대치한다. 그들은 “비판적인 두 눈”으로, 공격하는 남자들이 “사지를 쭉 뻗고 늘어질 때까지 사정없이 때려대고” “도살용 칼”을 어깨뼈에 쭈셔박는다. (286) 그러나 남자들을 때려눕히고 창밖으로 도망치려고 하다가 그들이 쏜 총에 맞아 들판 속에 엎드려졌던 여자들의 육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이들의 사라짐은 고대에 존재하던 여신 종교가 쇠퇴하여 이제는 사람들의 막연한 의식 속에만 남아있는 상태와 마찬가지로, 그녀들이 정신적 세계로 귀의했음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여자들이 에필로그에 다시 등장했으므로 다른 각도로 분석해 보아야 할 여지를 남긴다.

짧은 머리와 군복차림으로 다시 등장한 지지는 사형 집행유예를 받고 노역에 참여하게 된 감옥의 아버지를 만나 화해를 시도한다. 펠러스는 마치 그리스 여신 펠러스 아테나를 연상시키듯 장검을 찬 채 아이를 안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어머니의 앞에 당당하게 다시 나타난다. 메이비스는 한때 공포의 대상으로 여겼고 후에는 숨어서 지켜보는 것 밖에 할 줄 몰랐던 딸을 평온한 모습으로 다시 만난다. 세네카는 도로에서 어머니 진을 다시 만나고, 유리조각에 긁혀 피가 나던 상처는 순식간에 깨끗하게 아문다.

마치 여신의 사제들이었던 아마존을 연상시키는 이들의 복장과 자신에게 상처를 준 이들에게 먼저 모습을 보이는 적극적인 모습은, 그들이 겁에 질려 있던 이전의 희생자의 이미지에서 영적이고 당당한 여성 전사의 이미지로 바뀌었음을 상징한다. 이러한 변화의 모티브는 프레이저

(James George Frazer)가 『황금가지』 (*Golden Bough*)에서 설명한, 육체와 생명력의 완벽한 재생을 이루기 위해 살아있는 신을 죽이던 고대 종교 의식을 연상시킨다.

에필로그에 등장하는 파이어데드(Piedade)라는 인물과 안식하는 평화로운 모습은 잃어버린 고대 여신 종교가 가지고 있던 신의 모습을 완벽히 재현한다. “시와 종소리에 일어나 춤을 추는 뱀들”(264)에 대한 언급은, 앞장에서 설명했듯이 뱀이 고대에 여성으로 표현되었고 여신의 신탁을 내리는 존재였다는 점을 기억해낼 때, 여성성이 주관하던, 지배가 아닌 포용의 시대를 묘사하는 것이다.

노래하는 파이어데드는 흑인마돈나와 조상을 상징할 뿐 아니라 여신 같은 뮤즈 그리고 최상의 가수, 최상의 이야기꾼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성모마리아가 죽은 그리스도를 무릎에 안고 있는 피에타(Pieta)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파이어데드는 포르투갈어로 경건, 연민, 동정, 자비를 의미한다(Bouson 215). 타자를 소외시키고 상처 주는 루비의 남자들과 달리 파이어데드는 타자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위안을 주는 치유하는 여신의 이미지로 등장한다. 흑인 마돈나 상은 역사적으로 정통교리나 정치적 강령이 타자에 대해 휘둘렀던 폭력에 반하여 타자를 품고, 기르고, 수용하는 상처를 치유하는 구원의 상이었다(Birnbaum 12).

살펴본 바와 같이 수녀원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파라다이스』의 여성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여신의 모습과 그들을 통해서 재현되는 의식은, 미국 사회 내 흑인 여성들을 포함한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남성 중심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끼워 맞춘 정형화된 여성상이 아니라, 개개인 안에 있는 또 다른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만들어줄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남성의 물리적, 정신적 폭력 아래 두려워하며 자책하거나 자해를 일삼던 수녀원의 여성들이 그들의 상흔을 거짓 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은, 남성 사회의 억압을 경험하는 여성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루비 마을 남자들의



침략에 희생되어 결국 공동체로의 편입이 좌절되었던 것처럼 보였던 여자들이 전사의 모습으로 부활한 것은, 오래전 여신 신앙의 종말과 함께 사라져버렸던 여성의 긍정적이고 강인한 이미지를 다시 한 번 일깨우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3. 흑인여성의 정체성 확립

작품 속에 나타나는 여성 인물들을 통해 여신 신화의 재현과 완전한 부활을 이룬 『파라다이스』 이외에도 다른 여러 작품 속에서 토니 모리슨은 여러 여성 인물들 속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여신 신화를 재현한다. 또한 그들을 통해 흑인 여성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인습적인 제도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과 주체적인 삶의 방식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 제시는 대부분 가부장제에 길들여져 살아가는 여성과 이를 배재하고 살아가는 여성, 혹은 두 가지 성질의 여성 집단을 통한 대비로 나타나는데, 『파라다이스』에서는 수녀원 여자들과 마을 여자들을 비교해볼 수 있듯이 모리슨의 초기 소설 『가장 푸른 눈』의 피콜라와 클라우디아 (Claudia), 『술라』의 술라와 넬(Nell), 『솔로몬의 노래』의 메이컨 데드(Macon Dead)가의 여성들과 파일럿을 같은 예로 들 수 있다.

『파라다이스』에서 8암층의 혈통보존 법칙을 위반하고 밝은 피부의 어머니와 결혼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패트리샤(Patricia)는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15가구의 계보를 그리다가 루비 마을의 역사와 그들이 감추고 있는 근친혼의 비밀을 알게 된다. 그녀는 피부색에 따른 루비 마을 사람들의 배척과 여성의 정체성을 압박하는 작은 마을의 남성중심주의 사회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며 한탄한다.

어머니도 그렇지만, 도대체 달랑 이름 하나뿐인 이 여자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셀레스트, 올리브, 소로, 아이블린, 팬지. 보편적인 성을 지닌 이 여자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브라운, 스미스, 리버스, 스톤, 존스. 결혼한 남자들에게 정체성이 전적으로 달려 있는 모건,

플러드, 블랙호스, 폴, 플릿우드 가의 여자들. 결혼이라는 말이 유효하  
기나 하다면 말이다.

Who were these women who, like her mother, has only one  
name? Celeste, Olive, Sorrow, Ivlin, Pansy. Who were these  
women with generalized last names? Brown, Smith, Rivers, Stone,  
Jones. Women whose identity rested on the men they married-if  
marriage applied: a Morgan, a Flood, a Blackhorse, a Poole, a  
Fleetwood. (187-8)

그러나 패트리샤는 자신이 만든 가계도를 태워버림으로써 인종적, 성  
적 차별에 대한 반론의 충동을 스스로 소멸시켜버린다.

마을 남자들이 헤이븐 주민들의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화덕을 해체해  
루비로 가져오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다시 조립하며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대해 소앤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는 그  
실질적인 가치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여자들처  
럼 “수궁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며”(103) 남자들의 무의미한 일에 대해  
충고하기를 거부하며 입을 다문다.

수녀원의 여자들의 가치와 참 모습을 인정하고 루비 마을 공동체내의  
폐단을 직시하는 인물은 밝은 피부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배척당하는 빌  
리 델리아(Billie Delia) 뿐이다. 그녀는 남자들이 수녀원을 공격한 근본  
적인 이유를 꿰뚫어보고 있으며, 수녀원의 여자들이 사라지고 나서 그녀  
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녀에게는 다른 의문이 있었다. 그들은 언제쯤 돌아올 것인가? 언제  
다시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과 전쟁의 문신과 거대한 두 손을 가  
지고 나타나 마을이라 자처하는 이 감옥을 찢어발기고 발로 짓밟아  
뭇겉 것인가? 할아버지를 과멸시키려 하고, 어머니를 집어삼키는 데  
마침내 성공하고, 끝내 그녀의 자아까지도 파괴할 뻔했던 마을. 통제  
권력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 감히 누가 살 자격이 있고, 누구는 없  
으며, 또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까지 감히 정하려 들었던 사내들이 지

배하는 후미지고 변변찮은 마을. 그들은 생기 넘치고, 자유롭고, 무장하지 않은 여자들에게서 암말의 반란을 보고 씨를 제거해버렸다.

She had another question: When will they return? When will they reappear, with blazing eyes, war paint and huge hands to rip up and stomp down this prison calling itself a town? A town that had tried to ruin her grandfather, succeeded in swallowing her mother and almost broken her own self. A backward noplace ruled by men whose power to control was out of control and who had the nerve to say who could live and who not and where; who had seen in lively, free, unarmed females the mutiny of the mares and so got rid of them. (308)

남성중심 사회의 질서를 거부하는 수녀원의 여자들과 그 법 안에 동화되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마을 여자들의 대비와 마찬가지로 모리슨의 다른 작품들 속에 나타나는 많은 여성 인물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모리슨의 첫 소설 『가장 푸른 눈』에서는 후기작들에 비해 신화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백인중심사회에서 인종적, 성적, 연령적 억압의 위치에 놓인 어린 소녀 피콜라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중요한 단계에 어떻게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왜곡과 훼손의 희생자가 되는지를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묘사에 앞서 소설의 서문에서 모리슨은 미국 초등학교 읽기 교재 일부를 배치하는데, 이를 통해 미국 사회의 지배계급인 유럽계 백인들이 그들의 계급적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동원하는 ‘교육’이라는 문화적 장치에서 드러나는 계급간의 불균형과 배척을 폭로한다.

집이 있습니다. 초록색과 하얀색의 집입니다. 빨간 대문도 있습니다. 정말 예쁩니다. 한 가족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딕, 제인이 초록과 하얀색의 집 안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아주 행복합니다. 제인을 보세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제인은 놀고 싶습니다. 누가 제인과 놀아줄까요? 고양이를 보세요. 야옹야옹 울고 있습니다. 이리

와 놀아라. 제인과 놀아라. 아기고양이는 놀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보세요. 어머니는 매우 좋은 분입니다. 어머니, 제인하고 놀아주시겠어요? 어머니는 웃습니다. 웃어요, 어머니, 웃으세요. 아버지를 보세요. 아버지는 크고 강합니다. 아버지, 제인과 놀아주시겠어요? 아버지는 미소짓습니다. 웃습니다. 아버지는 웃습니다. 강아지를 보세요. 강아지는 멍멍 짓습니다. 제인하고 놀래? 강아지가 달리는 것을 보세요. 달려라, 강아지야, 달려. 친구가 오네요. 그 친구는 제인과 놀아줄 것입니다. 그들은 재밌는 놀이를 할 것입니다. 놀아요, 제인, 놀아요.

Here is the house. It is green and white. It has a red door. It is very pretty. Here is the family. Mother, Father, Dick, and Jane live in the green-and-white house. They are very happy. See Jane. She has a red dress. She wants to play. Who will play with Jane? See the cat. It goes meow meow. Come and play. Come play with Jane. The kitten will not play. See mother. Mother is very nice. Mother, will you play with Jane? Mother laughs. Laugh, mother laugh. See Father. He is big and strong. Father, will you play with Jane? Father is smiling. Smile, Father, smile. See the dog. Bowwow goes the dog. Do you want to play with Jane? See the dog run. Run, dog, run. Look, look. Here comes a friend. The friend will play with Jane. They will play a good game. Play, Jane, play. (7)

처음으로 읽기를 배우는 초등학생에게 맞춘 쉬운 어휘와 구문으로 구성된 단순한 텍스트이지만 이 속에 백인, 핵가족, 가부장제의 등의 이데올로기가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이도록 내연화(connotation)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이숙희 15). 모리슨은 이 텍스트를 작품 전반에 걸쳐 피콜라를 비롯한 흑인 인물들의 이야기와 대비시킴으로 백인사회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흑인과 흑인여성들이 현실을 비극적으로 묘사한다.

특정한 계급의 생활양식과 방식이 표준적 규범으로 자리 잡는 데에는 교육 외에도 다양한 문화적 도구의 기여가 크다. 컵에 새겨진 설리 템플

(Shirly Temple) 인형, 사탕 봉지에 박혀있는 메리 제인(Mary Jane)의 얼굴, 대형 스크린에 비쳐지는 세련되고 아름다운 백인 여배우들, 읽기 자료로서 제공되는 완벽하고 이상적인 가정으로서의 제인과 덕의 집, 이러한 문화적 도구의 강요에 백인 사회 속 흑인들은 이상적인 규범과 가치관에 어긋나는 자신의 외형과 생활모습에 혼란을 느끼며 정체성을 상실하고 만다.

피콜라와 그의 어머니 폴린(Pauline)이 바로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폴린은 백인 중심의 지배 논리에 맹목적으로 빠져들어가 피셔(Fisher)가라는 부유한 백인집안의 가정부로 일하면서 “하루 일이 끝나고 부엌에 서서 자신이 한 일을 바라보는 것”을 큰 낙으로 여기며 낮 동안 자신이 속하게 되는 백인사회를 이상적인 세계로 여긴다. 그녀는 친 딸인 피콜라보다 주인집 백인 딸을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여기며, 피콜라에게는 자신을 “브리드러브 부인(Mrs. Breedlove)”이라고 부르게 하는 대신 주인집 딸에게는 스스로를 “폴리(Polly)”로 낮춰 칭한다. 피콜라가 부엌에서 뜨거운 음식을 쏟는 장면에서 폴린은 맨살에 심한 화상을 입은 피콜라를 팽개치고 핑크빛 드레스의 끝자락만 젖은 주인집 아이를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달랜다(87).

백인문화의 이상과 가치관에 잠식당한 어머니 폴린의 맹목적인 동경과 백인화하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피콜라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한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관찰하며 자신이 실제로 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선생님이 똑같이 그를 무시하고 경멸한다”(39)고 이해한다. 그러나 피콜라의 ‘추함’은 본래적이라기보다 외부로부터의 이차적인 사회의 강요의 결과이다.

브리드러브 가족의 추함은 마치 어떤 전지전능한 주인이 나타나 그들 각각에게 추함의 옷을 입으라고 내려준 것과 같았다. 그들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 들였다. 주인은 말했다. “너희들은 추한 인간들이다.” 주위를 둘러보자 이 말을 거스를만한 것이 아무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

다. 사실, 빌보드며, 영화며, 쳐다보는 시선들이 모두 다 이 말을 지지하고 있었다. “예, 당신이 옳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추함을 받아들이고 망토처럼 걸친 뒤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

It was as though some mysterious all knowing master had given each one a cloak of ugliness to wear, and they had each accepted it without question. The master had said, “You are ugly people.” They had looked about themselves and saw nothing to contradict the statement; saw in fact, support for it leaning at them from every billboard, every movie, every glance. “Yes,” They had said, “You are right.” And they took the ugliness in their world with it. (34)

백인중심 사회가 내세우는 지배계급인 ‘주인’에 의해 ‘추한 자’로 호명된 흑인이자 빈민인 피콜라는 그것을 아무 의심없이 받아들인다. 그녀는 메리제인 사탕을 사먹으며 “메리제인을 먹고, 메리제인이 되는”(42) 것에 대해 기쁨을 느끼고, 셸리 템플 인형을 감상하기 위해 하루에 우유 일리터를 혼자 마신다. 그녀는 자신이 겪는 모멸과 질시가 백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흑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검은 피부와 검은 눈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백인이 되고 푸른 눈을 갖게 해 달라고 기도하기에 이른다. “개인의 자아가 불가피하게 인종과 성의 구조에 의해 형성되었으므로 그 원천으로부터 결코 해방될 수 없다”(550)라고 한 피치(Peach)의 말처럼, 피콜라는 백인중심의 사회의식에 자신의 정신과 정체성이 침범당하도록 허용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에 의한 강간과 유산으로 미쳐버리는 비극적인 결말의 희생양이 되고 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클라우디아는 훨씬 더 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태를 관찰한다. 클라우디아는 맹목적으로 백인사회가 요구하는 가치관에 순응하는 대신 “무엇이 그들(백인)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게 하는가”(62)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그녀의 비판적인 사고는 온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는 “푸른 눈과 노란 머리카락, 그리고 분홍색 피부를 가진 인형”에 대해 “둥글고 멍

청한 눈과 팬케이크처럼 납작한 얼굴과 오렌지 벌레 같은 머리카락을 보고 깜짝 놀랐고 기분이 나빠졌다”(20)라고 한 묘사에 나타난다. 그녀는 세상이 그 인형을 사랑스럽다고 말하는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인형을 분해한다. 밝은 피부를 가진 부유한 모린 필(Maureen Peel)이라는 새로 전학 온 소녀에 대해 친절함과 애정을 보내는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클라우디아는 그녀의 흠을 찾기 위해 애쓰는데, 이 역시 백인 가치관의 맹목적인 이상화에 대한 반발적이고 비판적인 행위라 하겠다.

마찬가지로 『술라』에서도 친구 사이인 술라와 넬의 대비를 통해 백인중심, 남성중심의 규범 속에 동화된 인물과 그에 대해 반발을 표출하는 인물들의 충돌을 그리고 있다. 넬의 집안인 라이트(Wright) 집안과 술라를 포함한 피스(Peace) 집안은 둘 다 남성의 부재라는 공통점 속에서 대조를 이룬다. 넬의 어머니 헬렌(Helene)은 매춘부였던 어머니 대신 청교도적인 할머니에 의해 전통적인 백인 가부장제하의 여성으로 자랐으며, 이러한 자신의 가치관을 넬에게 투사한다. 자신의 밝은 피부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딸인 넬의 코를 집게로 집어 높여주려고 하거나 뜨거운 빗으로 곱슬거리는 머리를 빗겨주는 등 백인여성의 미를 동경한다. 어머니의 백인 중산층 가부장적 가치관을 그대로 물려받은 넬은 백인 중심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은 한 남자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선한’ 여성이 된다. 이와는 반대로 넬의 남편 유드(Jude)가 넬과 결혼하려고 하는 동기는 도로건설의 인부자리를 얻지 못하고 사회에서 자기발현의 기회를 상실하자 여기서 느낀 좌절을 결혼이라는 수단을 통해 가장의 권위를 얻음으로써 회복하고자 함이다.

결혼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욱 매력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의 행운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의 옷 재단이 어떠한 간에, 울이 풀린 끝단을 집어넣어 시침질과 감침질이 필요한 옷들은 언제나 제대로 되어 있을 것이다. 자신을 떠받들 달콤하고도 부지런한, 그리고 충실한 사람이 항상 곁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보답으로 그녀



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며, 함께 늙어갈 것이다. 그런 상대가 없다면 그는 여자처럼 부엌 주변이나 서성거리는 급사가 될 뿐이었다. 그녀와 더불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일거리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 가정의 가장일 수는 있었다. 그들 둘은 함께 하나의 유대를 만들 것이다.

The more he thought about marriage, the more attractive it became. Whatever his fortune, whatever the cut of his garment, there would always be the hem—the tuck and fold that hid his raveling edges; a someone sweet, industrious and loyal to shore him up. And in return he would shelter her, love her, grow old with her. Without that someone he was a waiter hanging around a kitchen like a woman. With her he was head of a household pinned to an unsatisfactory job out of necessity. The two of them together would make one Jude. (*Sula* 83)

사회참여의 기회마저 박탈당한 흑인 남성이 자기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정신적, 물리적 공간은 가정이다. 성적욕망의 처소인 가정에서 흑인 남성들은 여성을 성의 노예로 만들어 군림하는 권력을 합법적으로 보장 받는다.

롤러(Roller)는 여성의 제한적, 억압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결혼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소우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두 기능을 실행하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이다. 결혼이 강요하는 것은 소유, 지배, 명령이다. 물론, 여자 쪽이 소유당하고, 지배를 받고 명령을 받으며 그러한 아내는 나약하고 보조적이 된다. 가부장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아내에 대한 지배와 착취이다; 자본주의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가족의 프라이버시, 소유 지배이다.

Marriage is presented as a microcosm of patriarchy and capitalism because it is the one institution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functioning of both. The emphasis of marriage is on possession and rule and order. Of course, the wife is the one to be possessed, ruled, and ordered she is the one who is to be made weak and subservient. It is the domination and exploitation of her that is necessary for patriarchy; it is familial privacy, possession, and rule that is necessary for capitalism. (158-9)

넬은 헌신적이고 수동적인 아내가 되어 스스로 택한 결혼이라는 제도적 굴레에 갇혀 살게 된다. 결혼에 대한 환상과 행복한 꿈은 서로에 대한 사랑의 부재로 끝이 나게 되고, 술라와 관계를 가지는 모습을 들킨 남편 쥬드는 넬을 떠난다. 쥬드가 떠난 후 넬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으며 점점 퇴색되어 시들어간다. 이것은 여성의 삶을 전적으로 상대 남성에게만 의존하게 만드는 사회제도 속에서 남성의 부재가 여성에게 큰 상실감을 줌과 동시에 자아발전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남성이 성적 즐거움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만족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는 술라의 가정에서 그녀의 할머니인 에바와 한나(Hannah)는 마을 남자들과 자유로운 육체적 관계를 누린다. 남편 보이보이(BoyBoy)가 집을 나가자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부담하기 위해 자신의 한쪽 다리를 희생하며, 아들 플럼(Plum)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 남은 음식이었던 라드(lard)로 관장을 해주고 딸 한나를 구하기 위해 불길속으로 몸을 던지지만, 한편으로는 전쟁의 충격으로 마약에 중독되어 지내는 플럼의 방에 불을 질러 태워죽이기도 한 에바는, 자신의 몸을 희생해 인간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고 삶과 죽음을 동시에 주관하던 고대 여신의 모티프를 간직하고 있는 인물이라 하겠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술라는 인습적인 삶을 선택한 넬에 비해 실험적이고 급진적인 방식으로 자아를 추구한다. 친구의 남편과 관계를 가지 고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술라에게 있어 성이란, 끊임없이

자신을 찾는 수단에 불과하다. 결혼을 하라는 에바의 권유에 “나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내 자신을 만들고 싶어요.”(92)라는 술라의 대답은 여성의 성과 독립성을 억압하고 순종과 희생을 요구하는 제도에 대한 그녀의 반발심과 주체적인 자아확립의 욕망을 잘 드러내준다. 그러나 바텀(Bottom) 마을 사람들은 공동체의 규범을 거부한 채 자신의 삶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술라를 불길하고 사악한 ‘악’으로 규정한다. 그들이 겪는 모든 불행의 원인을 술라에게로 돌려 그녀를 철저히 고립시킨다. 술라와 관계를 맺었던 남성들마저 마을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술라를 악의 화신으로 규정하며 매도하는데에 가세하는데, 이것은 『파라다이스』에서 루비 마을 사람들이 수녀원의 여자들을 마녀들로 몰아가던 일을 연상시킨다. 그들은 “자신들의 좌절과 분노를 훨씬 더 다루기 쉬운 대상에게 쏟음으로써 술라를 자신의 ‘선’을 증명하기 위한 희생자로 만든다”(김영란 50).

작품 속 바텀 마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일반적인 독자가 가지게 될 벨은 ‘선’이고 술라는 ‘악’이라는, 혹은 그 반대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은 벨의 개인적인 불행과 술라의 죽음, 그리고 그녀의 죽음 후 벌어진 마을 사람들의 대참사와 같은 결과로 인해 혼란에 부딪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오펜(Otten)의 다음과 같은 말은 작품의 결말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일찍이 흑인들이 ‘악’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반응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들은 ‘악’이란 우주에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생각했으며, 그것을 근절할 필요가 없었다. ‘악’이란 이질적인 힘이 아닌, 그저 조금 다른 힘일 뿐이다.

It was interesting to me that black people at one time seemed not to respond to evil in the ways other people did. They thought evil had a natural place in the universe; they did not need to eradicate

it. Evil is not an alien force; it's just a different force. (28-9)

현대의 백인중심 가부장적 사회가 확립한 선악관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이러한 비극의 원인은 공동체가 상대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타자를 ‘악’으로 몰아가며 스스로의 ‘선’을 정당화한데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자신의 가치관에 반하는 타자에 대한 배척을 당연시하는 사회 속에서 올바른 여성의 자아확립을 위한 해답은 넬을 술라와 동일시하는 에바의 말에서 드러난다. 모리슨은 두 인물로 대표되는 극단적인 어느 한 쪽의 삶의 방식을 지지하는 대신 두 자아의 공존과 타협을 통한 이상적인 정체성 확립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술라』에 이어 쓰여진 모리슨의 세 번째 작품 『솔로몬의 노래』는 『파라다이스』와 마찬가지로 신화적 요소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작품이다. 그리스 신화, 유럽 영웅적 서사시, 아프리카 민담과 구전 등의 많은 모티프를 사용하고 있는 『솔로몬의 노래』는 앞선 두 작품에서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던 것과는 달리 남성 인물인 밀크맨을 통해 가족의 역사와 뿌리에 대한 이해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일종의 성장소설의 형식을 띄고 있다. 그러나 작품 속에 등장하는 파일럿을 비롯한 많은 여성 인물들은 『파라다이스』의 여성 인물들만큼이나 신화적 색채로 가득 하며, 작품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솔로몬의 노래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이 성경 속에서 따온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점인데, 남성중심문화의 기초가 된 성서적 관점에서 매우 정숙한 여인으로 묘사되는 루스(Ruth)와 예수를 죽인 파일럿(빌라도)이라는 이름이 밀크맨의 어머니와 고모의 이름으로 사용되며 두 인물의 대조를 암시하고 있다.

먼저 밀크맨의 어머니 루스(Ruth)는 남성의 법 속에 자신을 종속시킨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이는 밀크맨의 자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구약 성서에서의 루스는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지극한

효성과 충성으로 인해 이스라엘인에게 선택받아 후에 탄생하게 될 예수의 선조가 되는 인물이지만, 『솔로몬의 노래』에서의 루스는 남편과 자식에게 무시당하고 죽은 아버지 포스터(Foster) 박사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인물이다. 편부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아버지 포스터 박사와의 지나친 유대와 아들에 대한 집착을 보이며 남편과의 성적 불만을 아버지와 과거, 아들에게 젓을 먹이는 행위로 충족시킨다. 아들이 13세가 될 때까지 젓을 먹이는 모습을 들키는 바람에 아들이 밀크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이것은 남편인 메이컨 데드(Macon Dead)에게 아내의 근친상간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진다. 포스터 박사의 임종 시에 옷을 벗고 아버지의 곁에 누워 그의 죽은 손가락을 빨고 있던 루스의 모습 역시 성경속 정숙한 여인인 루스와는 상반된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드보락 여산가 뭘가는 당신 이름조차도 모를 걸. 그 여잔 당신을 그냥 포스터 의사 선생의 딸로 불렀을걸. 그 여자는 아직도 당신 이름을 몰라. 내 거기에 백 달러를 걸지. 당신은 당신 자신만으로는 무(nobody)야. 당신 아버지의 딸이라면 몰라도.”

“그래요.” 루스는 가냘프지만 강경하게 말했다. “난 정말 우리 아버지의 딸일 뿐이에요.” 루스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메이컨은 포크를 내릴 새가 없었다. 포크를 식탁 위에 내던지며 그는 빵을 집어들려던 손을 날려 루스의 턱을 휘갈겼다.

“Anna Djvorak don’t even know your name! She called you Dr. Foster’s daughter! I bet you one hundred dollars she still don’t know your name! You by yourself ain’t nobody. You your daddy’s daughter!”

“That’s so,” said Ruth in a thin abut steady voice. “I certainly am my daddy’s daughter.” She smiled.

Macon didn’t wait to put his fork down. He dropped it on the table while his hand was in its way across the bread plate becoming the fist he smashed into her jaw. (66-67)

남성에게 종속된 상태가 아니면 무(nobody)라고 비난하는 남편의 말에 루스는 스스로를 낮은 자로 규명하며 “나는 아버지의 딸”이라고 만족스럽게 대답한다. 여성으로서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남성에게 의지하며 스스로 그 아래에 자신을 종속시키는 그녀의 정적인 삶은 마치 그녀와 그녀의 딸들이 만들던 인조 벨벳장미처럼 “빛나는, 그러나 생명이 없는”(10) 죽음의 상태와도 같다.

흑인이지만 철저한 물질주의와 가부장제라는 백인의 이데올로기를 표방한 메이컨 가의 정신적 불모 상태는 루스뿐만 아니라 그녀의 딸이자 메이컨의 누나인 레나(Lena)와 코린시안스(Corinthians)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밀크맨의 둘째 누나인 코린시안스 역시 성서에서 따온 이름이 반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 예인데, 신약 성경 속 코린시안스(고린도)라는 곳은 화려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방종한 도시로 창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sup>8)</sup> 그러나 밀크맨의 누나인 코린시안스는 오랫동안 아버지의 법에 억압받으며 정신적, 감정적, 성적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했던 인물이다. 밀크맨이 누나인 코린시안스의 연인이 빈민가에 살고 있고 비밀스러운 일에 연루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에게 알려 관계를 단절시키려 하자 큰누나인 레나의 분노가 폭발한다.

너의 폐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나는 13년 동안이나 세상의 공기를 마시며 살았어. 코린시안스는 12년이었고.... 우리의 소녀 시절은 너에게 비하면 거저주운 동전쪼가리 같았지. 네가 자면 우리는 조용히 해야 했고, 네가 배고프면 음식을 만들었지. 네가 놀고 싶다 하면 널 즐겁게 해주었어.... 이제 너의 속옷은 네가 빨아라. 이불도 네가 펴고, 씻고 나면 욕조도 다 씻고 이곳저곳 네가 흘린 것도 죄다 치워. 그런데도 넌 이날까지 한번이라도 우리더러 피곤하냐고 물어본 적 있

---

8) 창녀의 이미지는 기독교적 윤리와 남성중심관념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자유로운 여성의 성은 부권중심사회에 위협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남성신 종교에 의한 박해의 대상이었던 고대 여신을 섬기던 성전에서는 여사제들이 배우자가 아닌 남성들과 신성한 성적 결합을 이루었다.

니? 울적한지 커피 한 잔 할 것인지 권해본 적 있니.... 넌 아버지하고 꼭 같은 인간이야. 한 치도 다르지 않아.

I was breathing air in the world thirteen years before your lungs were even formed. Corinthians, twelve.... Our girlhood was spent like a found nickel on you. When you slept, we were quiet; when you hungry, we cooked; when you wanted to play, we entertained you.... You have yet to wash your underwear, spread a bed, wipe the ring from your tub, or move a fleck of your dirt from one place to another. And to this day, you have never asked one of us if we were tired, or sad, or wanted a cup of coffee.... You are exactly like him. Exactly. (216-217)

루스와 그의 두 딸은 이처럼 남편이자 아버지인 메이컨의 법 속에서 살면서 그것이 자신들을 죽이는 방식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타파할 수가 없어 자신들을 죽여가며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남성의 법에 대한 여성으로서의 그들의 순응과 포기는 너무 철저하여 레나가 위와 같이 분노했을 때, 당사자인 밀크맨조차도 자신이 가해 온 오랜 세월의 남성적 폭력을 낮설게 받아들일 정도다.

이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메이컨과 사이가 좋지 못한 고모 파일럿은 반문명적, 반자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며 『파라다이스』의 콘솔레이타와 비슷하게 어머니 여신의 상징성을 보유하고 있다. 여자들만 모여 사는 『파라다이스』의 수녀원처럼 파일럿과 그녀의 딸, 그리고 그녀의 손녀가 살아가는 집은 밀크맨의 집안과는 달리 가부장주의가 침투하지 못하는 장소이다. 물질의 추구에만 급급한 메이컨과, 스스로를 작은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결혼전에는 아버지의 법에 따라 살아가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루스, 그리고 그에 숨죽이며 커져가는 분노를 몰래 억누르고 살아가는 밀크맨의 두 누나들과 반대로, 파일럿은 생명과 기쁨, 자유, 인간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는 여성이며,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는 남자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일족의 보호자이자 강한 우

두머리의 모습을 동시에 가진 여성이다. 과일렛의 이러한 모습은 초기 신앙의 여신이 사랑과 전쟁, 삶과 죽음을 동시에 주관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과일렛이라는 이름 역시 성경에서 따온 것으로, 문맹인 그녀의 아버지가 성경책을 뒤적이다 우연히 고른 단어인데 이 이름은 예수를 죽인 빌라도를 의미한다. 남성 신의 아들의 처형을 허락한 인물의 이름을 가진 여성이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가부장제와 기독교적 가치관을 부정함과 동시에, 여성이 자신의 삶과 성에 주도권을 가지고 신으로 상징되는 자연의 범속에서 살아가던 고대 여신 신앙 사회의 형태를 재현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과일렛은 사랑과 생명의 고귀함을 인식하고 범인류적인 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던 밀크맨의 어머니와 누나들과는 달리 조상의 의미와 과거의 중요성을 그에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 과일렛은 아프리카와 근동 지방을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존재해왔던 위대한 어머니 여신의 재현인 것이다. 과일렛이 배꼽이 없이 태어났다는 사실은 그녀가 태초의 여신을 재현한다는 분석에 대한 근거가 되어주고 있다. 식탁 위의 꽃병에 놓여있던 물 자국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할 뿐인 루스와 비교하여, 인간이자 누군가의 자녀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배꼽이 없는 과일렛은 1장에서 인용한 ‘태초에 있던 자, 가장 오래된 자’라고 묘사하는 이시스 여신의 기록을 떠올리게 한다.

과일렛이 어머니 여신을 상징하는 것에 더해 밀크맨이 남부로의 여행을 시작하며 만나게 되는 서스(Circe)와 스위트(Sweet)는 여신의 여사제 역할을 한다. 밀크맨이 찾아간 아버지의 고향인 댄빌(Danville)에서, 어린 시절 메이컨과 과일렛을 돌봐주었던 서스의 집은 초자연적인 힘으로 가득한 곳이다. 서스는 백살이 넘은 노파이지만 스무 살 처녀의 목소리를 가진 기괴한 모습으로 밀크맨을 혼란에 빠뜨린다. 흥미롭게도 서스라는 이름은 오딧세우스의 영웅 서사시에 등장하는 마녀 키르케를 일컫는다.<sup>9)</sup>



그녀는 밀크맨에게 그가 모르고 있던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며 그를 선조의 과거로 인도하는 지식의 전수자로 등장하고 있다. 한편, 그의 몸을 씻겨주었던 스위트는 치료자인 여사제의 이미지로 설명할 수 있다. 남성중심적 사고와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밀크맨과 육체적 관계를 가지는 스위트는 ‘창녀’로 밖에 인식되지 못하지만, 여신 종교의 관점에서 볼 때 그녀가 밀크맨과 성관계를 가지고 몸을 씻겨주던 행위는 일종의 정화의식을 상징한다. 밀크맨은 가부장제의 피폐함을 벗어나 과일렛, 서스, 스위트를 거쳐가며 과거 자신이 가졌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원초적인 순수의 상태로 돌아가며 육체적, 정신적 재생을 이루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남성중심사회의 가치관과 법 아래 숨죽이고 살아가거나 그에 동화되고자 하는 피콜라, 폴린, 벨, 루스 등의 여성 및 여성집단의 모습은 백인 남성 중심 사회종교 속에서 자아를 상실해가는 현대 흑인 여성에 대한 꾸지람으로써 작용한다. 그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모습과 위치에 안주하려하며 사회가 바라는 외적 틀에 맞지 않는 자신에 대해 혐오로 자아를 부인하려하거나, 타인에 대한 사랑을 왜곡된 방식으로 표현하며 부정적인 영향만을 남기게 된다. 그러나 여성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도 주체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했던 클로디아, 솔라, 예바와 과일렛 등은 비록 백인남성중심 사회에 의해 배척당하고, 심지어는 악으로 낙인찍힐지언정 언제나 생명력이 넘쳤으며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특정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타인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는 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즉 모리슨은 이러한 두 여성집단의 대조를 통해, 무조건적으로 기존의 질서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정형화된 법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주도적으로 확립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9) Circe 또는 Kirke. 남성중심의 신화에 의해 ‘마녀’라는 오명을 달고 있지만 키르케의 원형은 약물과 약초에 관한 지식을 주관하는 여신이였다.

## 4. 결론

『파라다이스』에 대해 비판적인 평자들은 “기계적으로 과거와 현재, 신세대와 구세대, 남성과 여성을 반목하게 하는 부자연스럽고, 상투적인 책” (Kakutani 2)이라고 하거나, 또는 “성에 따른 편리한 구분으로 미덕과 악덕이 엄격하게 구분된 것처럼 보인 작품” (Bent 148)라는 평가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서술기법이 소설을 쓸데없이 어렵게 만든다”(Leavis 360)라고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난해한 서술방식을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도입한 신화학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파라다이스』는 선과 악을 성(gender)으로 구분 지으며 단지 여성우월주의를 내세우는 작품이 아니라, 고대에 존재하던 모계사회와 여신신앙을 통해 남성중심사회의 그릇된 편견 속에 스스로를 희생자의 역할로 고립시키는 여성들을 일깨우고 남녀가 평등한 사회에 대해 주장하는 소설이다.

파라다이스의 마지막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작품의 결론 중 하나는 가부장제의 권위를 주장하던 루비 마을의 유지 중 하나인 디컨의 변화이다. “오만하고 사죄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는” 스투어드와는 달리 디컨은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느낌, 숨죽인 고독”(300)을 느끼기 시작하며 한때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하여 대립하던 리처드 미즈너(Richard Misner) 목사에게 선조들의 과거를 고백하고 자신이 범한 과오와 잘못된 역사를 인정한다.

구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대립을 와해하고자 노력하며 “고립은 세대를 죽게 만든다. 고립되면 미래가 사라진다”(210)라고 주장하던 미즈너 목사는 새로운 의견,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허용하지 않는 마을의 믿음

체계가 그 존재 자체를 파괴시켜버릴 것을 알고 있다(Romero 419). 마을의 구세대와 젊은 세대, 그리고 마을 남자들과 여자들, 루비 마을과 수녀원 사이에서조차 가장 중립적인 인물이었던 그는, 자신들의 상흔을 부정하고 여전히 그들의 왜곡된 신화를 유지해가려는 고집스러운 루비 마을을 떠나려던 생각을 버리고 그곳에 남아있기로 다짐하면서 변화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여성의 이름들이 붙여진 소재목으로 이루어진 각 장들과 달리 어떠한 소재목이 붙어있지 않은 작품의 에필로그에서 수녀원의 여자들이 양성적인 이미지로 나타난 것 또한 예가 될 수 있다. 그들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처럼 머리를 깎고, 군복을 입고, 장검을 들었다. 한 인간 안에 존재하는 여성성과 남성성이 함께 나타난 것은 생명과 죽음, 사랑과 전쟁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며 그것을 동시에 주관하던 고대 여신과 그 여신을 섬기던 이들처럼, 빛과 어둠, 남자와 여자, 백인과 흑인 등의 가부장제 기독교적인 이분법을 부정하고 공존을 추구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모리슨은 1993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가진 “노벨상 기념 강연”에서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낙원에 도달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다른 언어, 다른 관점, 다른 서술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기”(270)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파라다이스』의 마지막에 대문자 P로 시작되어야 할 ‘Paradise’를 소문자를 사용해 의도적으로 ‘paradise’라고 써야했다고 말했다(Gray 20). 즉, 낙원이란 제외와 배척을 기본으로 하는 ‘선민’들의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기반으로 여러 인종과 종교를 포함하는, 만인에게 열려있는 공간임을 모리슨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남신과 여신들이 평신도들과 함께 회당에 앉아 예배를 보며,” “시와 종소리에 일어나 춤을 추는 댄들”(264)이 있는 낙원에 대한 언급, 그리고 “밀가루빛, 장밋빛, 진주빛”(318)이 한데 어우러진 여성의 얼굴에

대한 묘사는 모든 성과 인종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조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낙원의 모습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sup>10)</sup> 흑인과 백인, 남성과 여성 모두가 서로의 평등한 권위를 인정하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일 때, 그리하여 그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낙원에 한 발 가까워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모리슨의 확고한 주관은 자신에게 따라붙는 ‘흑인작가’ 혹은 ‘여성작가’라는 수식어구가 편견이나 차별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흑인으로서 또한 여성으로서 흑인과 여성의 감정을 이해하고 직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호칭에 오히려 자부심을 느낀다고 한 말에 의해 알 수 있다.

처음에 사람들은 ‘당신은 스스로를 “흑인작가”라고 여기는가, 혹은 “작가”라고 여기는가?’ 라고 물으며 또한 “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여성작가”라고 여기는지에 대해 질문하곤 했다. 그래서 나는 먼저 흘가분하게 “나는 흑인 여성 작가”라고 말했다.... 나는 한 사람의 흑인이자 또 여성으로서 접할 수 있었던 감정과 지각의 범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

“In the beginning, people would say, ‘Do you regard yourself as a black writer, or as a writer?’ and they also used the word woman with it-woman writer. So at first I was glib and said *I’m a black woman writer*.... I really think the range of emotions and perceptions I have had access to as a black person and as a female person are greater than those of people who are neither. I really do.” (Rothstein 862-83)

사회의 잘못된 역사와 편견이 온전히 허물어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

10) 이에 대해 구바(Gubar)는 모리슨이 묘사한 인종의 경계가 허물어진 혼합적 종족 정체감이야말로 미래의 사회에 인종 차별주의적 범주를 뛰어넘게 만드는 구원의 가능성이라 말한다. (230)

흑인 여성이 여전히 스스로를 인종과 성별의 이중 차별의 피해자로만 여기며 불평을 늘어놓는 이상,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흑인 여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굳건히 세우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때 여신과 모계중심 사회 아래 여성들의 권위가 확고했던 시대가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했으며 또한 어떠한 신화적 사건과 형태로 변화되어 우리 안에 남아있는지를 인식해야만 한다.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실을 인식한 후에 여성은, 빼앗긴 주권에 대한 무절제한 분노나 잃어버린 여성중심사회의 회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수동적이고 때로는 자발적으로 남성의 법에 속해왔던 자신의 ‘가부장제 아래 희생양’의 모습을 탈피하고 개인 안에 있는 주도적인 여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 또한 사회의 부조리와 그 속에서 얻은 상흔을 무조건적으로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파라다이스』의 수녀원의 여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신의 모습과 사회의 병폐마저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여성성을 이끌어내어야 한다. 백인과 남성이라는 지배계층의 편익을 위해 정형화한 외적 아름다움과 순종적인 ‘성녀’의 모습을 무조건적 절대가치로 받들며 숨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포용할 때에야 비로소 백인 사회 내의 흑인 여성을 포함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의 진정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것이다.

## Bibliography

- 권혁미. 「토니 모리슨의 『낙원』에서의 순수성의 비극」. 『현대영미소설』. 12.1 (2005) 39-58.
- 김영란. 「토니 모리슨의 흑인 여성적 글쓰기: 『술라』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영희. 「상흔의 탐색과 회복: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의 후기 3부작을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신재민. 「Toni Morrison 의 *The Bluest Eye* 연구—구술화법과 내면언어를 통한 정체성의 추구」. 『중앙영어영문학』 3. (1998) 161-188.
- 신진범. 「아프리카계 미국소설에 나타난 억눌린 이산종교의 회귀: 찰스 체스 넷, 조라 닐 허스턴, 토니 모리슨, 이슈마엘 리드, 글로리아 네일러의 작품을 중심으로」. 『영어영문학 연구』. 48.2 (2006) 205-222.
- 이숙희. 『토니 모리슨』. 부산: 세종출판사, 2007.
- 장혜순. 「토니 모리슨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자아 정체성 탐구: 『술라』와 『파라다이스』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캠벨, 조지프. 『신의 가면: 서양신화』. 정영목 역. 서울: 까치글방, 1999.
- 파린더, 지오프레이. 『아프리카 신화』. 심재훈 역. 파주: 범우사, 2006.
- Bakerman, Jane. “The Seams Can’t Show: An Interview with Toni Morrison.” *Conversations with Toni Morrison*. ed. Danille Taylor-Guthrie. Jackson: UP of Mississippi, 1994.
- Bammer, Angelika. *Partial Visions: Feminism and Utopianism in the*

- 1970s. New York: Routledge, 1991.
- Bent, Geoffrey. "Less Than Divine: Toni Morrison's *Paradise*." *The Southern Review*. 35.1 (1999) 145-49.
- Birnbaum, Lucia. *Black Madonnas: Feminism, Religion, and Politics in Italy*. Boston: Northeastern UP, 1993.
- Bouson, J. Brooks. *Quiet As It's Kept: Shame, Trauma, and Race in The Novels of Toni Morrison*. Albany: State U of New York P., 2000.
- Davidson, Rob. "Racial Stock and 8-Rocks: Communal Historiography in Toni Morrison's *Paradise*." *Twentieth-Century Literature* 47.3 (2001) 355-73.
- Davis, Christina. "An Interview with Toni Morrison." *Conversation with Toni Morrison*. ed. Danille Taylor-Guthrie. Jackson: UP of Mississippi, 1995: 223-233.
- Doctorow, E. L. "False Documents." *Jack London, Hemingway, and the Constitution: Selected Essays 1977-1992*. New York: Harper, 1994.
- Gilbert, Sandra M. and Gubar, Susan. *The Madwoman in the Attic: The Woman Writer and the Nineteenth-Century Literary Imagination*. New Haven: Yale UP, 1979.
- Gray, Paul. "Paradise Found". *Time*. Jan. 19, 1998:62-68.
- Gubar, Susan. *Racechanges: White Skin, Black Face in American Culture*. New York: Oxford UP, 1997.
- Herron, Leonora and Bacon, Alice M. "Conjuring and Conjure-Doctors." *Mother Wit from the Language Barrel: Readings in the Interpretation of Afro-American Folklore*. ed. Alan Dundes. Jackson: UP of Mississippi, 1990:359-68.

- Holloway, Karla F. and Stephanie A. Demetrakopoulos. *New Dimensions of Spirituality of the Novels of Toni Morrison*. New York: Greenwood, 1987.
- Kakutani, Michiko. "Wary Town, Worthy Women, Unredeemable Men." *New York Times* 6 (1998): B8.
- Leavis, L. R. "Current Literature 1998." *English Studies* 4(2000): 358-67.
- Lester, Rosemarie K. "An Interview with Toni Morrison, Hessian Radio Network, Frankfurt, West Germany." *Critical Essays on Toni Morrison*. Ed. Nellie Y. McKay. Boston: G. K. Hall, 1988:47-54.
- McDowell, Deborah E. "The Self and the Other: Reading Toni Morrison's *Sula* and Black Female Text." *Critical Essays on Toni Morrison*. Ed. Nellie T. McKay. Boston: G. K. Hall and Co., 1988. 70-90.
- Morrison, Toni. *The Bluest Eye*. New York: A Plum Book, 1994.
- \_\_\_\_\_. *Paradise*. New York: A Plum Book, 1999.
- \_\_\_\_\_. *Song of Solomon*. New York: Vintage Books, 2004.
- \_\_\_\_\_. *Sula*. New York: A Plum Book, 1982.
- \_\_\_\_\_. "The Nobel Lecture 1993." *Toni Morrison: Critical and Theoretical Approaches*. Ed. Naney J. Peterson.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97. 267-73.
- Moynihan, Daniel P. "The Moynihan Report." *The Negro Family: The Case for National Actio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Labor, 1965.
- Otten, Terry. *The Crime of Innocence in the Fiction of Toni Morrison*,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89.



- Peach, Linden. ed. *Toni Morrison*. Houndmills: McMillan, 1998.
- Roller, Judi M. *The Politics of the Feminist Novel*.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86.
- Romero, Channette. "Creating the Beloved Community: Religion, Race, and Nation in Toni Morrison's *Paradise*." *African American Review*. 39.3 (2005) 415-30.
- Rothstein, Mervyn. "Toni Morrison, in her New Novel, Defense Women." *The New York Times: Biographical Service* (26 August), 1987: 862-63.
- Rusell, Sandi. "It's OK to say OK." *Critical Essays on Toni Morrison*. Ed. Nellie Y. McKay. Boston: G.K.Hall, 1988. 43-46.
- Smith, Barbara. "Toward a Black Feminist Criticism." *Feminist Criticism and Social Change*. ed. Newton and Deborah Rosefelt. New York: Methuen, 1985.
- Smith, Dinitia. "Mixing Tragedy and Folklore: Rev. of *Paradise*." *New York Times* 8 (January 1998): B1-B2.
- Stone, Merlin. *When God Was a Woman*. New York: A Harvest Book, 1978.
- Timothy, Ellen L. "Individuation and The Paradox of Loe; Toni Morrison's Pedagogy of Transformation and Healing." University of Washington, Ph. D. 2004.